
2 0 2 6 학 년 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 어 해 설 지

공통과목 [1~34]



피렐리의
국어공작소

생각 워크북 <정보는 카테고리화된다.>

2026.11 [1~3] 독서론(인문) '독서 능력의 단순 관점' ☆☆

1문단

①글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독해에는 글의 유형이나 독서 흥미 등의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②이를 고려하여 독해 능력을 복잡한 과정으로 설명한 연구가 많다. ③하지만 고프와 동료 연구자들이 제시한 **단순 관점**은 독해 능력을 '해독'과 '언어 이해'로 단순화하여 설명한다. ④해독은 개별 단어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단어를 빠르고 정확히 소리 내어 읽기, 단어를 한눈에 식별하기 등을 포함한다. ⑤언어 이해는 말로 듣거나 글로 읽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중심 내용 파악하기, 추론하기 등을 포함한다.

①~② #수식된 정의 제시 #화제 제시

글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인 '독해'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독해 능력'을 복잡한 과정으로 설명한 연구가 많다고 해요. 다양한 요소라는 말을 고려하면, 복잡한 과정으로 설명한다는 건 당연히 납득할 수 있겠죠?

③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비교/대조 #카테고리 나누기

이와 대비하여, '고프'라는 사람과 동료 연구자들은 '단순 관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독해 능력'을 '단순'하게 보는 '관점'이네요. 이 관점에서는 '해독'과 '언어 이해'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독해 능력'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각 카테고리를 이루는 개념의 정의를 정확하게 체크할 준비를 해야겠죠?

④~⑤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사례-원리 연결

먼저 '해독'입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개별 단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단어를 빠르고 정확히 소리 내어 읽고, 단어를 한눈에 식별하는 것 등은 '해독'의 사례로 쉽게 납득할 수 있겠죠? '언어 이해'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언어'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여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단순히 글을 읽고 식별하는 수준이 아니라, 중심 내용을 파악하거나 추론하는 등 확실하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것이 '언어 이해'입니다. 이 교재에서 주구장창 강조하는 내용 그 자체죠?

하이라이트 문장

③하지만 고프와 동료 연구자들이 제시한 단순 관점은 독해 능력을 '해독'과 '언어 이해'로 단순화하여 설명한다.

'단순 관점'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체크하는 것은 기본이고, '해독'과 '언어 이해'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 이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2문단

①단순 관점에 따르면 **해독 발달**에는 글자와 글자 소리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이므로 **글 읽기 경험**과 **말소리 듣기 경험**이 모두 필요하다. ②한편, 단어 인식을 못해 글을 읽을 수 없어도 그 내용을 말로 들려주었을 때 중심 내용 파악하기 등을 할 수 있다면, **해독 발달 전에도 구어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언어 이해가 발달된 것으로 본다.** ③또한 해독이 발달되면 글 읽기 경험을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통해서도 언어 이해가 발달될 수 있으므로 **해독 발달 후에는 독서 경험이 독해 능력 발달에 주요한 기여를 한다**고 본다.

① #카테고리 나누기 #재진술

두 가지 카테고리 중 '해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글 읽기 경험'과 '말소리 듣기 경험'이 모두 필요하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일단 글을 읽고 말을 들어보는 경험이 쌓여야 '개별 단어를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지문이 쉽더라도 앞에서 확인한 개념의 정의를 끌고 오며 납득하는 태도를 견지하셔야 합니다.

② #재진술

한편, 단어 인식을 못해 글을 읽을 수 없어도(=해독 능력이 없어도) 그 내용을 말로 들려주었을 때 중심 내용 파악하기 등을 할 수 있다면(= '언어 이해' 능력이 있다면) '해독' 발달 전에도 구어 의사소통 등을 통해 '언어 이해'가 발달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해독'과 '언어 이해'의 정의를 끌어들이어 읽었다면, 밑줄 친 부분은 그저 앞 내용의 재진술일 뿐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문맹들과 같은 경우를 떠올리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해독'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아도 '언어 이해'가 발달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③ #재진술 #비교/대조

반대로, 일단 '해독'이 발달하면 글 읽기 경험을 통해 '언어 이해'가 발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우리도 일단 단어를 읽고 식별할 줄 알게 된 후에 본격적으로 여러 글을 읽으면서 '언어 이해' 능력을 키워왔잖아요. 이렇게 최대한 당연한 말로 납득하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3문단

①이를 바탕으로 **단순 관점**은 독자 유형을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②해독과 언어 이해가 모두 충분한 독자, 해독과 언어 이해가 모두 부족한 독자, 언어 이해는 충분하지만 해독은 부족한 독자, 해독은 충분하지만 언어 이해는 부족한 독자이다. ③단순 관점에 따르면 **해독과 언어 이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한 독자는 독해에 어려움을 겪으며, 능숙한 독해 수준에 도달하기도 힘들다.** ④가령, 단어 인식은 잘하지만 글의 중심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은, 해독은 충분하지만 언어 이해가 부족한 독자 유형에 해당하며 능숙한 독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①~② #카테고리 나누기 #재진술

이를 바탕으로 '단순 관점'은 '독자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독자 유형'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제시되었으니, 이를 통해 정보를 처리할 준비를 해야겠죠?

'단순 관점'에서는 '독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해독' 및 '언어 이해'의 두 가지 카테고리만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독자 유형'은 2X2의 네 가지 유형일 것입니다. 둘 다 충분한 독자, 둘 중 하나만 충분한 독자, 둘 다 충분하지 못한 독자 이렇게 말이죠. 이걸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아가 '둘 중 하나만 충분한 독자'에 대해서 2문단에서 이야기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2문단 3번 문장에서는 '해독'은 충분하지만 '언어 이해'는 부족한 독자가 '해독과 언어 이해가 모두 충분한 독자'로 발전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던 것입니다.



③~④ #재진술 #사례-원리 연결

‘단순 관점’에서는 ‘해독과 언어 이해가 모두 충분한 독자’ 유형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독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어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말이나 글의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독해’를 제대로 해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4번 문장의 사례는 ‘해독’과 ‘언어 이해’의 정의를 다시 읊어주는 수준에 불과하니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하이라이트 문장

①이를 바탕으로 단순 관점은 독자 유형을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새로운 카테고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문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해야 할 생각’은 하면서 글을 읽어야 합니다. ‘독자 유형’이라는 카테고리에 주목하면서 글을 읽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4문단

①단순 관점은 글자를 단어로 인식하고 글의 내용을 파악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기까지 독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하지는 않는다. ②그러나 독해 능력에 해독과 언어 이해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독해 능력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다.

①~② #재진술

지금까지 이해했듯이, ‘단순 관점’은 단순히 독해 능력을 ‘해독’과 ‘언어 이해’라는 ‘결과’로만 설명할 뿐, 독자의 머릿속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해한 ‘단순 관점’의 정의를 바탕으로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는 비판이죠? 하지만 ‘독해 능력’을 연구하는 데 있어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마무리되고 있네요. 이 역시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하며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최대한 ‘납득’하면서 읽어야 해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	2%	87%	3%	7%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

① 단순 관점에 따르면 추론하기는 언어 이해에 해당한다.

명시적 근거	1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런 고차원적인 건 언어 이해지.
해설	중심 내용 파악, 추론하기 같은 고차원적인 의미 파악은 ‘언어 이해’의 영역이었습니다. 1문단에서 확실하게 체크했던 정보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사람의 한계가 된다.

② 단순 관점은 해독의 발달과 언어 이해의 발달을 모두 고려하여 독자 유형을 나눈다.

명시적 근거	3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독자 유형’이라는 카테고리를 인식하고, 그에 맞춰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것을 당연하게 납득했다면 바로 지워낼 수 있는 선지네요.

③ 단순 관점에 따르면 독해 능력이 발달되기 위해서는 말소리 듣기 경험에 앞서 독서 경험이 필요하다.

명시적 근거	2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일단 말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독서를 하지.
해설	각 개념의 정의를 고려할 때, ‘말소리 듣기 경험’은 ‘해독’ 발달과, ‘독서 경험’은 ‘언어 이해’ 발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말소리 듣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독’이 발달되어야 ‘독서 경험’, 즉 ‘글 읽기 경험’을 통해 ‘언어 이해’를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게 상식적이죠? 2문단 3번 문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요.

④ 단순 관점은 해독과 언어 이해가 독해 능력에 끼치는 영향을 밝혀 독해 능력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명시적 근거	4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런 의의가 있다고 했지.
해설	4문단 2번 문장을 그대로 써 놓은 모습이죠?

⑤ 단순 관점과 달리, 독해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독해 능력을 복잡한 과정으로 설명한 연구들이 있다.

명시적 근거	1문단 1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원래 ‘독해’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독해 능력’을 복잡한 과정으로 설명한 연구가 많다고 하면서 이와 대비되는 것으로 ‘단순 관점’을 제시했었습니다. 이런 초반부 흐름을 잘 잡았다면 당연하게 지워낼 수 있는 선지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5%	3%	4%	86%

2. 단순 관점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 '비판' 문제입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비판' 문제는 무조건 출제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비판' 문제는 주관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순 관점'은 어떤 비판에 직면할까요? 자연스럽게 4문단 1번 문장이 떠오릅니다. 독해 능력을 '해독'과 '언어 이해'라는 '결과'로만 설명할 뿐, 독자의 머릿속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포함하는 선지를 그대로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5번 선지에 답이 있네요. 이렇게 풀 수 있어야 해요.

- ① 해독이 부족하여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다루지 않았다.
- ② 독해에서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아 독해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
- ③ 독해 능력 발달에 있어 해독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아 언어 이해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 ④ 해독 발달을 글을 통한 시각적 경험으로만 설명하여 청각적 경험의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 ⑤ 해독과 언어 이해를 바탕으로 글의 의미를 이해하기까지의 사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히지 않았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6%	22%	64%	5%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④

단순 관점을 지지하는 연구자 갑은 학생 A, B의 독해 능력을 분석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활동은 학생 A, B와 같은 연령대의 학생들이 수행하기에 무리가 없는 수준의 자료로 진행되었다. 아래는 학생 A, B가 수행한 활동의 결과이다.

- 소리 내어 단어 읽기: 학생 A는 활동 자료에 있는 단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었고 한눈에 잘 식별하였다. 학생 B는 활동 자료에 있는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지 못하였고 한눈에 식별하지 못하였다.
- 중심 내용 파악하기: 학생 A는 활동 자료를 글로 읽을 때와 말로 들을 때 모두 중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학생 B는 활동 자료를 글로 읽을 때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말로 들을 때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였다.

- '학생 A'와 '학생 B'의 상태부터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생 A'는 개별 단어를 인식하는 능력, 즉 '해독' 능력은 충분하지만, 중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아 '언어 이해'가 부족한 독자네요.

한편, '학생 B'는 '해독' 능력 자체가 부족합니다. 나아가 글로 읽을 때의 '언어 이해' 능력도 부족하구요. 하지만 말로 들을 때의 '언어 이해' 능력은 갖춘 것으로 보아, '해독' 발달 전에 '구어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언어 이해'가 발달된 케이스인 것인데요.

이렇게 확실하게 <보기>를 정리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가 법계 해결해보도록 합시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① 갑은 학생 A가 해독은 발달되었지만, 중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점에서 언어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1문단 4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미리 생각한 내용 그 자체죠?

- ② 갑은 학생 A가 글자와 글자 소리에 대한 학습을 통해 개별 단어를 인식하는 능력이 발달되었다고 생각하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2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게 해독 발달에 필수적이지.
해설	'글자와 글자 소리에 대한 학습'은 '해독' 발달에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2문단 1번 문장에서 근거를 찾아도 되겠지만, '해독'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바탕으로 선지 자체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 ③ 갑은 학생 A의 언어 이해가 구어 의사소통 경험뿐 아니라 글 읽기 경험을 통해서도 발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2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해독이 발달되었으니까 글 많이 읽으면 언어 이해 발달할 수 있지.
해설	'학생 A'는 '해독'이 발달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독서 경험'과 같은 '글 읽기 경험'이 쌓이면 '언어 이해'를 발달시킬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정보를 단순히 정리하기만 하면 헷갈리게 되면서 답으로 고르게 됩니다. 독해 과정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납득하면서 읽어야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요.

- ④ 갑은 학생 B가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지는 못하지만, 글 읽기 경험을 통해 중심 내용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2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글 읽기가 아니라 구어 의사소통 경험이지.
해설	미리 생각했듯이, '학생 B'는 '구어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말로 들을 때의 '언어 이해' 능력만을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2문단 2번 문장을 바탕으로 미리 했어야 하는 생각이에요. 2문단 2번 문장을 바탕으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보기>를 조금만 꼼꼼하게 읽었다면 '학생 B'의 '글 읽기 경험'이 풍부하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독서론' 지문 속 문제들이 그리 어렵지 않게 출제되고 있었다 보니, '독서론' 지문 역시 '독서' 지문의 일종임을 잊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독서론' 지문을 읽을 때도 살짝 쉬운 '독서' 지문이

라고 생각하며 해야 할 생각을 하고, ‘납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래야 이런 문제를 막힘없이 풀어낼 수 있습니다.

- ⑤ 같은 학생 B가 단어를 한눈에 식별하지는 못하지만 말로 들은 활동 자료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해독 발달 전에 언어 이해가 발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2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구어 의사소통 경험 바탕으로.
해설	〈보기〉를 정리하면서 미리 했던 생각 그 자체죠? 가볍게 지워낼 수 있겠습니다.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 ④ 카테고리 나누기 : 정보들의 범주가 나뉠 때, 그들이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 카테고리에 맞춰 정보를 정리하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문 내용 총정리

정의를 체크하고, 재진술을 인식하고, 카테고리를 나누며 납득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며 읽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만약 ‘독서론’이라는 이유로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접근했다면 3번 문제에서 당황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독서론’도 결국 ‘독서’ 지문이라는 점, 절대 잊지 않도록 합시다.

생각의 전개 <법 제재의 지문 읽기>

2026.11 [4~9] 사회(법) '법 해석과 보증 계약' ☆☆☆

(가) 1문단

①법조문으로 구성된 법 규범인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법 해석이라고 한다. ②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성문법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그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③이러한 '문리 해석'이 법 해석의 출발점이다.

①~③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화제 제시

'법 해석'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그 정의인데, 기본적으로 '법 해석'은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즉 '문리'에 맞게 '해석'하는 '문리 해석'을 출발점으로 삼는다고 해요.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이 개념들의 정의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법 해석'이라는 화제를 인식한 상태로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가) 2문단

①그러나 문리 해석으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체계적 해석',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역사적 해석' 등의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그 예로서 '담보'를 들 수 있다. ③담보의 일상적 의미는 '말아서 보증함'이고, 이런 의미로 사용된 예로 '구조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를 들 수 있다. ④하지만 성문법 조문에서 사용될 때는 그 맥락을 고려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①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이러한 '문리 해석'이 '법 해석'의 기본이지만, 이것만으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체계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 등의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정의를 받아들여봅시다. 먼저 '체계적 해석'입니다. 사용된 맥락을 '체계적'으로 따져서 '해석'하는 방법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한편 '역사적 해석'은 입법 과정에서 논의라는 '역사'를 바탕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 해석'에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이었어요.

②~④ #사례-원리 연결 #재진술 #화제의 흐름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라는 추상적인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담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담보'의 일상적 의미, 즉 '문리 해석'에 따른 결과는 '말아서 보증함'이라고 해요. '구조물의 안전을 말아서 보증하기 위한 검사'와 같은 방식으로 쓰이는 게 일반적인데, 성문법 조문에서 사용될 때는 그 '맥락'을 고려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체계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요? 이제부터는 '담보'라는 개념을 '체계적 해석'하는 상황에 대해 제시될 것입니다. 이렇게 화제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야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④하지만 성문법 조문에서 사용될 때는 그 맥락을 고려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맥락을 고려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을 '체계적 해석'으로 바뀌어 이해하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는 것은 기본이고, 화제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까지 인식하면서 지문을 장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 3문단

①담보는 유상 계약의 맥락에서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②유상 계약이란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③유상 계약의 일종인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매도인은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④그 책임의 내용은 손해 배상이 원칙이지만, 만약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파기하고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⑤<다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② #카테고리 나누기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먼저 '유상 계약'의 '맥락'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계적 해석'을 하면, '담보'를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리 해석'과는 확실히 그 의미가 달라진 모습이지요? '유상 계약'이란 단어의 의미 그대로 당사자가 서로 '유상'으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라고 해요. 이러한 맥락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인식해놓고 하나하나 납득해보도록 합시다.

③~④ #사례-원리 연결 #재진술

'유상 계약'이라는 추상적인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매매 계약'이라는 사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모두 2019학년도 수능 '법을 효과' 관련 지문에서 다뤄졌던 것들이기에 익숙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어쨌든,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하지 못한 상황, 즉 '담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을 '담보'할 책임이 있는 매도자가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담보'의 '체계적 해석' 결과와 엮어서 당연하게 납득하며 읽어야 해요.

그 '담보 책임'의 내용은 손해 배상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수많은 법 지문들에서 다뤄졌던 내용이니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담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매수자가 입은 '손해'는 돈으로 '배상'해야죠. 하지만 하자로 인해 아예 계약의 목적 달성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면, 매수자는 계약을 파기하고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내용으로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블릿PC를 중고로 구매한 경우를 예로 들어 봅시다. 액정에 금이 간 정도는 배상받는 걸로 통칠 수 있지만, 아예 메인보드가 깨져서 작동이 되지 않으면 환불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⑤ #예외 제시 #화제의 흐름

법 지문답게 예외가 제시되는 모습입니다.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요. 역시 당연하게 허용할 수 있겠지요? 하자에 대해 알면서도 사 놓고 손해 배상을 해달라거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으니깐요. 이렇게 예외 상황을 납득하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

가 지금 ‘담보’라는 개념을 ‘체계적 해석’하는 사례에 대해 읽고 있다는 생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보 처리에 매몰되어 화제의 흐름을 놓치는 순간 독해가 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문장

⑤다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 지문의 꽃인 예외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기본이고, 앞서 언급했듯이 화제의 흐름 또한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중간중간 길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지금 뭘 읽고 있지?”라는 생각을 떠올리며 화제의 흐름 속으로 다시 들어와야 해요.

(가) 4문단

①한편,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②담보 물건이 그 예이다. ③금전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실현되는데,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마련된 경매 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금전 채권이 실현된다. ⑤이때 경매 대금을 배당받을 금전 채권자가 여러이면 각 채권자는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⑥그러나 그 채권자 중 담보 물건을 가진 자는 경매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부터 먼저 배당받는다.

① #카테고리 나누기 #재진술

이번에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 ‘담보’를 ‘체계적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담보’는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해요. 새로운 카테고리가 제시되었으니 확실하게 체크하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②~③ #사례-원리 연결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이번에는 ‘담보 물건’이라는 사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를 정의해주지 않고 넘어갔어요. ‘담보 물건’이라는 단어는 그냥 어휘력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전문적인 용어이기에, 뒤에서 반드시 정의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읽어나가야 합니다.

아무튼, ‘금전 채권’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이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이기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야 실현되는데,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역시 2019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문을 모른다고 해도 최대한 상식적으로 납득하면서 읽어야 해요. 돈을 안 갚으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죠!

④~⑤ #사례-원리 연결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만약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라면,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마련된 경매 대금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금전 채권’이 실현된다고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니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파는 집행’을 거쳐 채권이 실현되게끔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네요. 경매 대금을 배당받을 ‘금전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당연히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경매 대금을 배당받아야 할 것입니다. 많이 빌려준 채권자일수록 많이 배당받는다는 건 너무나 상식적이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⑥ #사례-원리 연결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화제의 흐름

이때, 그 채권자 중 ‘담보 물건’을 가진 자는 경매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부터 먼저 배당받는다고 합니다. ‘담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빌려준 돈이 적더라도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 ‘담보’가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담보 물건’을 ‘물권(부동산과 같은 물건에 대한 권리)’을 통해 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것 정도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례를 통해 이런 정의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어쨌든,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담보’라는 개념을 ‘체계적 해석’하는 사례에 대해 읽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화제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나아가, ‘역사적 해석’에 대해서는 나온 적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에서라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가원은 앞에서 정의한 개념을 반드시 활용하니깐요.

하이라이트 문장

⑥그러나 그 채권자 중 담보 물건을 가진 자는 경매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부터 먼저 배당받는다.

이 상황을 납득하는 것은 기본이고, 지문에 명시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담보 물건’이라는 개념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앞 문단과 마찬가지로 화제의 흐름을 재인식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나) 1문단

①보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것이다. ②이때 원래의 채무자를 주채무자,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보증인이라 하고,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주채무,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 채무라 한다. ③보증은 담보 기능을 수행하므로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 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④보증은 성립하려면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보증 계약이 필요하다. ⑤보증 계약은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유상 계약이 아니다. ⑥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①~②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보증’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무시무시한 단어로 접해봤을 개념이기에 많이들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주채무자’, ‘보증인’, ‘주채무’, ‘보증 채무’와 같은 개념의 정의는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겠죠? 돈을 빌린 사람과 관련된 것이 ‘주채무자/주채무’이고, 보증인과 관련된 것이 ‘보증인/보증 채무’입니다.

③ #재진술

이때, ‘보증’은 ‘담보’ 기능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맥락’을 따져야 합니다. (가)에서 ‘담보’의 ‘체계적 해석’에 대해 읽었으니깐요. 생각을 해보니, ‘보증’은 ‘채권과 관련된 맥락’입니다. 즉, 이때의 ‘담보’는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보증’은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죠.

이에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 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고 합니다. ‘보증 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주

채무'가 소멸되며 해당 채권이 실현되었으면 '보증 채무'는 역할을 다 한 것이니까요. 이렇게 앞에서 체크한 개념의 정의를 끌고 오면서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⑥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보증'이 성립하려면 '보증 계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때 '보증 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합니다.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주채무자' 대신 돈을 갚겠다는 계약을 하는 것이죠. 이는 '보증인'에게만 '보증 채무'라는 채무를 발생시키고 '채권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에 '유상 계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유상 계약'의 정의를 바탕으로 이렇게 당연하게 납득해야 해요.

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별도의 계약'은 '보증 계약'과 당사자가 다릅니다. '보증 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와 맺는 계약이니까요. 이 '별도의 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다든 점에서 '유상 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증 계약'은 '유상 계약'이 아닌 것이죠.

하이라이트 문장

③보증은 담보 기능을 수행하므로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 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사실 '보증'이 '담보'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이 문장을 보기 전, 그러니까 '보증'의 정의를 체크하면서부터 미리 했어야 하는 생각입니다. (가)와 (나)는 아주 긴밀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늘 생각합시다.

(나) 2문단

①보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법적 규제가 적용된다. ②우선 「민법」에 의하면 보증 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③이를 위반한 보증 계약은 무효이지만 보증 채무가 이행되었으면 보증인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④주채무가 주채무자의 사업과 무관한 금전 채무이고, 보증인이 대가 없이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보증 계약을 한 경우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보호도 제공된다. ⑤예컨대 보증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증 기간은 3년으로 간주된다.**

①~③ #카테고리 나누기 #재진술

'보증 계약'은 굉장히 위험한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 규제를 통해 '보증인'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보증인 보호'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는 모습이죠?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보증인 보호'의 예시네요. 이를 위반하면 '보증 계약'은 무효가 되지만, '보증 채무'가 이행되었으면 '보증인'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역시 너무나 당연합니다. 보호를 해주려고 해도 스스로 보호받을 생각없이 '보증 채무'를 이행했다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④~⑤ #사례-원리 연결 #재진술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사업과 무관한 금전 채무이고, '보증인'이 대가 없이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보증 계약'을 했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가적인 보호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보증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증 기간을 3년으로 간주하는 것이네요. 즉, 3년이 지났을 때는 자연스럽게 '보증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하이라이트 문장

①보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법적 규제가 적용된다.

'보증인 보호'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 나뉘질 때마다 확실하게 나뉘 주면 정보 처리가 수월해진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나) 3문단

①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만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채권자에게 증명하여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그러나 보증인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연대 보증 특약'**이 보증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③이러한 특약을 한 보증인인 연대 보증인은, 채권자가 곧바로 주채무 전액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① #사례-원리 연결 #재진술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채무자는 안 갚을 것 같으니 바로 '보증인'에게 가는 경우죠. 이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강제 집행'이라는 말을 보자마자 반갑다는 생각이 드시죠?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이라는 '담보'가 있는데 왜 나한테 먼저 '담보' 기능을 요구하냐고 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②~③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그런데 '보증인'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연대 보증 특약'이라는 것이 '보증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연대 보증'을 서겠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채권자가 곧바로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주채무자와 '연대'하는 '보증'인이 되겠다는 '특약'을 한 상태니까요. 이런 식으로 단어의 의미를 살리며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③이러한 특약을 한 보증인인 연대 보증인은, 채권자가 곧바로 주채무 전액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새로운 정보로 느껴지면 안 됩니다. 앞에서 했던 말을 반대로 써 놓았을 뿐이네요. 이를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납득하지 못한 정보가 늘어갈수록 선지 판단의 부담감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나) 4문단

①연대 보증인에게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는데, 어떤 해석 방법을 따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②위 법률 제2조가 그 적용 대상인 보증 계약을 '주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입법 과정에서 연대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① #재진술

이러한 '연대 보증인'에게도 '보증 기간'을 3년으로 간주하는 등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어떤 '해석 방법'을 따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고 해요. 여기서 바로 '역사적 해석'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아직 회수하지 않은 초반부 핵심 개념에 해당하니까요.

② #재진술 #화제의 흐름

위 법률 제2조는 그 적용 대상인 '보증 계약'을 '주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문리 해석'을 하면 '연대 보증인'은 이 법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연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 그저 '채권자'가 먼저 채무 이행을 요구하기만 해도 '보증 채무'를 이행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연대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를 고려한 '역사적 해석'을 하면 '연대 보증인'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역사적 해석'이 등장했음을 인식하는 순간 지문을 장악했다는 느낌이 드시죠? 화제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중간 중간 쏟아지는 정보들도 완벽하게 납득했으니, 이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보도록 합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②위 법률 제2조가 그 적용 대상인 보증 계약을 '주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입법 과정에서 연대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정보가 많이 생략되어 있지만, 위 법률 제2조가 규정하는 내용이 '연대 보증인'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또한 '입법 과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 문단의 내용들을 잘 납득하면서 읽었다면 그리 어렵지 않은 과정이었을 거예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3%	8%	9%	6%	4%

4. (가)와 (나)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① (가)는 법조문의 의미 해석 방법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나)는 보증 계약에 관한 규범의 주요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1번 문장, (나)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핵심이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해설	(가)는 법조문의 의미 해석 방법을 '문리 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고, (나)는 '보증 계약'에 관한 규범의 주요 내용들을 설명하는 지문이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골라서 선지에 담았네요.
----	---

② (가)는 법조문의 의미 차이가 확대되어 온 이유를 분석하고, (나)는 보증 계약에 관련되는 주요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다.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법조문의 의미 차이 확대가 언제 나왔어.
해설	'법조문의 의미 차이 확대' 같은 건 (가)에서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관련 내용을 납득한 기억이 없죠? 물론 (나)에서는 '보증 계약'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을 정의했죠.

③ (가)는 법조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의 사례를 소개하고, (나)는 보증 계약의 폐해와 이로 인한 결과를 서술하고 있다.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보증 계약의 폐해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었어.
해설	(가)는 '담보'라는 사례를 통해 법조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나)에서 '보증 계약'의 폐해를 다루지는 않았죠? '보증'은 나쁜 것이라는 우리의 보편적 인식을 살짝 건드려본 귀여운 선지네요.

④ (가)는 법조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입장들을 대조하고, (나)는 보증 계약이 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화한 과정을 밝히고 있다.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보증 계약의 변화 양상은 없었지.
해설	(가)에서는 법조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여러 입장들이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에서 '보증 계약'의 변화 양상을 설명한 적은 없었죠? 우리는 '보증 계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⑤ (가)는 법조문의 의미를 다른 상황에서 유추하여 도출하고, (나)는 보증 계약의 유형별로 규제의 공통점을 비교하고 있다.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유추라니 뭘 헛소리야.
해설	(가)는 철저하게 법적 맥락 속에서 법조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황에서 유추했다고 보기 어렵죠. 한편, (나)에서는 '연대 보증 특약'이 포함된 '보증

	계약과 그렇지 않은 '보증 계약'으로 유형을 나누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적 규제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따져 보고 있으니, (나)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애매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	---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12%	17%	62%	5%

5.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 ①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상적 의미가 해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명시적 근거	(가) 1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래서 문리 해석이 기본이었지.
해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대로입니다. '문리 해석'이 법 해석의 출발점인 이유였죠?

- ② 법조문에서의 담보에는 채권자의 금전 채권 실현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조치라는 법적인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명시적 근거	(가) 4문단 1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담보'를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 '체계적 해석'하면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금전 채권' 역시 '채권'의 일종이기에 너무나 당연한 선지가 되겠네요.

- ③ 금전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 진행된 경매에서 담보 물권의 존재 여부는 경매 대금의 배당 순위에 영향을 준다.

명시적 근거	(가) 4문단 5번~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담보 물권'이 존재하면 경매 대금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담보'의 효과였죠?

- ④ 유상 계약에서의 담보는 당사자 간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하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교환 대상 사이의 값어치가 일치해야 계약이 체결된다.

명시적 근거	(가) 3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하는 것일 뿐이고 대상 사이의 값어치를 일치시킬 필요는 없지.
해설	'유상 계약'에서 '담보'는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상대방에게 제공할 거래 대상 자체의 값어치만 보장하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에게서 받을 거래 대상과의 값어치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상식적으로도 거래

	대상 사이의 값어치가 일치하지 않으면 거래가 무효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물론 엇비슷하긴 해야 거래가 성사되겠지만, 늘 그 값어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	--

- ⑤ 법조문의 의미를 문리 해석만으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조문의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기도 한다.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역사적 해석을 할 수도 있지.
해설	'문리 해석'만으로 부족하면 '체계적 해석'이나 법조문의 '입법 과정'에 주목하는 '역사적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이니 당연히 지워낼 수 있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30%	13%	32%	19%

6. (가),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보증 계약은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유상 계약이 아니다. ㉠ 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이런 유형의 문제는 주관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문을 읽으면서도 생각했지만,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 계약'은 '유상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보증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인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니까요. '별도의 계약'에서 '보증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주채무자'였죠?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 ①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채권자가 대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명시적 근거	(나) 1문단 4번~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걸 왜 채권자가 대신 받아.
해설	'채권자'는 '보증인'으로부터 '보증 채무'를 받을 수 있을 뿐,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의 이유와도 전혀 관련이 없구요.

- ② 보증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보증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명시적 근거	(나) 1문단 4번~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니네.
해설	미리 생각한 내용 그 자체입니다. '별도의 계약'으로 인해 '보증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은 '주채무자'이지, '보증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가 아닙니다. ㉠의 상황에서도 '채권자'는 여전히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증 계약'은 '유상 계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

- ③ 보증 채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명시적 근거	(나) 1문단 4번~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도대체 이게 뭘 상관이야.
해설	이 선지의 경우 자체를 따져 봅시다.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은 일종의 '유상 계약'입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지급하기로 한 보증의 대가에 하자가 있으면 '보증인'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보증 채무'를 이행하기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선지 자체가 틀린 말인 데다가, ㉠과 전혀 무관하기에 답으로 고르면 안 되는 선지입니다.

- ④ 채권자에게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보증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명시적 근거	(나) 1문단 4번~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좋은 말인데... ㉠이랑 무슨 관련이 있지?
해설	'채권자'에게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보증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보증'이라는 개념의 정의 그 자체니까요. 하지만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에 답이 될 수 없죠? 이런 선지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정 부분에 밑줄을 그어놓고 묻는 문제는 주관식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관식으로 답을 생각하고 그 내용과 똑같은 말을 하는 선지를 찾아나서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이런 '맞는 말이지만 무관한 선지'에 낚이지 않을 수 있어요.

- ⑤ 보증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실현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담보 물권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명시적 근거	(나) 1문단 4번~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긴 한데, ㉠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해설	4번 선지와 마찬가지로 맞는 말이지만 합니다. '보증'과 '담보 물권' 모두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 '담보' 기능을 하는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답으로 고르시면 안 됩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18%	15%	23%	39%

7. 연대 보증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건너뛰고 자신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한 경우 '주채무자'가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는데, '연대 보증 특약'을 건 '연대 보증인'은 이 권리가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를 '문리 해석'하면 '연대 보증인'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역사적 해석'을 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납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골라봅시다.

- ①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대가 없이 보증 계약을 한 자이어야 한다.

명시적 근거	(나) 2문단 4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건 연대 보증이랑 상관없는 내용이지.
해설	이 선지의 내용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자의 조건이었지, '연대 보증인'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볍게 지워낼 수 있겠죠?

- ②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 문리 해석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명시적 근거	(나) 4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아니었지.
해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는 '주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하도록 하는 계약'에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문리 해석'하면 주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조건 없이도 채무 이행의 대상이 되는 '연대 보증인'의 '보증 계약'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미리 생각한 내용이니 빠르게 지워내야 해요.

- ③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한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명시적 근거	(나) 3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 권리를 포기한 게 연대 보증인이지만.
해설	'연대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자신에게 주채무 전액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보증인'에게 이 권리가 있는데, '연대 보증인'은 '연대 보증 특약'을 통해서 이 권리를 포기한 이들이었어요.

- ④ 채권자와는 보증 계약을 하고 채무자와는 연대 보증 특약을 함으로써,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명시적 근거	(나) 3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연대 보증 특약은 보증 계약의 일부지.
해설	‘연대 보증 특약’은 ‘보증 계약’에 포함되는 ‘특약’입니다. ‘계약’이 아니라 ‘특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쉽게 납득할 수 있었겠지요? 즉, ‘연대 보증 특약’ 역시 ‘채권자’와의 계약의 일부이지, ‘채무자’와의 계약이 아닙니다.

- 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그 채권이 실현되면 더 이상 보증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명시적 근거	(나) 1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연대 보증인도 결국 담보 기능을 하는 거니까 맞지.
해설	‘연대 보증인’도 어쨌든 ‘보증인’이고, ‘보증인’은 ‘담보’ 기능을 하며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채권자’의 채권이 실현되면 더 이상 ‘보증인’으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연대 보증인’에 대해 묻는 척을 하면서 결국 ‘보증=담보의 예시’라는 (가)와 (나)의 연결고리를 묻는 모습입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	15%	47%	19%	12%

8.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③

갑은 자신이 보유한 예술품을 1년에 1점씩 4년간 을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1점당 500만 원씩을 매년 연말에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했다. 을은 그 예술품을 소장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었다.

- 법 지문의 사례 제시형 <보기> 문제입니다. 늘 해온 것처럼 완벽하게 분석해놓고 선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 즉 ‘유상 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을’은 그 예술품을 ‘소장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기서 ‘주채무자의 사업과 무관한 금전 채무’라는 말이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을’은 자신의 사업과는 무관한, 개인 취미에 따른 금전 채무를 ‘갑’에게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금전 채무의 내용은 4년간 매년 그림 1점을 받고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갑이 을에게 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을은 병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했고, 병은 을에 대한 호의로 대가 없이 갑과 보증 계약을 했다.

- 이때, ‘갑’은 ‘을’에게 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요구했고, 이에 ‘을’은 ‘병’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합니다. 착한 호구 ‘병’은 ‘을’에 대한 호의로 대가 없이 ‘갑’과 ‘보증 계약’을 했네요. 그나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보호 제공의 조건은 갖춘 상황입니다. ‘갑’과 ‘을’의 계약이 총 4년이니, ‘병’은 3년이 지난 계약 마지막 해에는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나아가, 만약에 이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병’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으면 ‘보증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것입니다.

이에 갑이 을에게 예술품의 납품을 시작했고 을은 2년 동안 갑에게 그 대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후 2년 동안 갑이 예술품을 1년에 1점씩 납품했으나 을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갑이 병에게 미납 대금 1,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 본격적으로 ‘갑’과 ‘을’의 대가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 동안에는 큰 문제 없이 계약이 이행되었는데, 이후 2년 동안 ‘갑’은 대가를 지급했으나 ‘을’은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에 ‘갑’은 ‘보증인’인 ‘병’에게 미납 대금 1,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보증 기간’은 3년으로 간주될 것이기에 ‘병’이 실제로 감당해야 할 ‘보증 채무’는 500만 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는 정리가 된 상태에서 선지로 가셔야 합니다.

- ① 갑이 납품한 예술품에 갑의 행위와 무관한 하자가 있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 을이 그 하자를 알 수 있었으면 을은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

명시적 근거	<보기>, (가) 3문단 3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예외 상황이었지.
해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갑’이라는 매도자가 손해 배상을 하여 ‘담보’ 기능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시점에 ‘을’이 그 하자를 알 수 있었다는 예외적인 상황이기에, ‘을’은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죠? 늘 출제되는 ‘예외’ 상황에 대해 묻는 선지였네요.

- ② 갑이 납품한 예술품에 하자가 있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이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을은 그 대금의 환불을 받을 권리가 없다.

명시적 근거	<보기>, (가) 3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목적 달성이 되면 환불 안 되지.
해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갑’이라는 매도자가 손해 배상을 하여 ‘담보’ 기능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어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키면 될 것이기에, ‘을’은 그 대금의 환불을 받을 권리가 없죠.

- ③ 보증 계약서에 병의 서명은 있고 연대 보증 특약이 없는 경우, 을에게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이 있음을 병이 갑에게 증명했다 라도 병은 갑이 요구한 1,0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명시적 근거	〈보기〉, (나) 2문단 2번~3번 문장, (나) 3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연대 보증인이 아닌데 당연히 거절할 수 있지.
해설	일단 보증 '계약서'가 존재하고, '병'의 서명이 있기에 '보증 계약'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연대 보증 특약'이 없기에 '병'은 '연대 보증인'이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을'에게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이 있음을 '병'이 '갑'에게 증명하면 '병'은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납득한 내용 그대로 나왔으니 어렵지 않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죠?

- ④ 보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연대 보증 특약이 없는 경우, 병이 을을 대신하여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면 보증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명시적 근거	〈보기〉, (나) 2문단 2번~3번 문장, (나) 3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보증 채무 이행해버렸으면 무효 주장 못하지.
해설	보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기에 원래 이 '보증 계약'은 무효이지만, '보증 채무'가 이행된 상태이기에 '병'은 '보증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납득했던 내용이었기에 빠르게 지워낼 수 있었어야 해요.

- ⑤ 보증 계약서에 병의 서명도 날인도 없지만 연대 보증 특약이 있는 경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든 병은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명시적 근거	〈보기〉, (나) 2문단 2번~3번 문장, (나) 3문단~4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애초에 계약이 무효잖아.
해설	보증 '계약서'는 존재하지만 '병'의 서명도 날인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는 '연대 보증 특약'이 있더라도 '보증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 해석과는 무관하게 '병'은 '갑'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3%	4%	2%	89%

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

- ① ㉠: 이루는
② ㉡: 헤아려
③ ㉢: 깨뜨리고
④ ㉣: 이루어지려면
⑤ ㉤: 바로잡고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④ 카테고리 나누기 : 정보들의 범주가 나뉠 때, 그들이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 카테고리에 맞춰 정보를 정리하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⑤ 사례-원리 연결 : 모든 사례는 어떠한 추상적인 원리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을 연결지으며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⑥ 예외 인식 : 일반적이지 않은 '예외'는 언제나 중요한 출제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확실하게 체크합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사례를 통해 추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예외를 제시하는 형태의 전형적인 법 지문이었습니다. 나아가 카테고리를 나누고 재진술을 인식하는 등 기본적인 독해 태도도 잘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납득'하면서 읽는 태도였습니다. 납득하는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선지 판단이 압도적으로 빨라진다는 점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생각의 전개 <과학·기술 제재의 지문 읽기>

2026.11 [10~13] 과학 '열팽창 현상과 액추에이터' ☆☆☆

1문단

①열팽창이란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②그중 길이의 변화를 수치화한 것이 선형 열팽창 계수인데, 이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③여기에서 길이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누어 얻는 값이며, 변화량이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것이다. ④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이며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 ⑤합금인 인바(invar)와 순수한 금속인 알루미늄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이며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다.

①~③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초반부 정보 건디기

'열팽창'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열'을 가해 온도가 변화하면 길이나 부피가 '팽창'하는 현상이네요. 그중 '길이의 변화'를 수치화한 것이 '선형 열팽창 계수'라고 합니다. '선형'은 '직선'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를 알고 있다면 '직선'과 관련된 '열팽창 계수'이니 '길이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라는 식으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선형 열팽창 계수'는 $\frac{\text{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text{온도 변화량}}$ 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나누기가 제시되면 분수로 바뀌서 이해하는 것, 기출문제를 풀면서 많이 경험했던 내용이지요? 개념의 정의를 바탕으로 '온도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 길이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낸 것이구나.'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때 '선형 열팽창 계수'의 분자를 구성하는 개념인 '길이 변화율'은, $\frac{\text{길이의 변화량}(=\text{나중 길이}-\text{처음 길이})}{\text{처음 길이}}$ 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역시 나누기로 정의되고 있으니 분수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길이 '변화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저 개념이 어렵지 않게 이해되겠지요? 시험장에서 바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메모를 해서라도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 해요. 과학·기술 제재의 지문에서 초반부 정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후반부 정보도 처리하기 어려워지니까요.

④ #재진술 #이면의 정보 추론하기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선형 열팽창 계수 : 양수'라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의 이면에 숨겨진 정보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해요. $\frac{\text{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text{온도 변화량}}$ 이 양수라는 것은, 분모인 '온도 변화량'이 양수일 때를 기준으로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 즉 $\frac{\text{길이의 변화량}(=\text{나중 길이}-\text{처음 길이})}{\text{처음 길이}}$ 도 양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나중 길이'가 '처음 길이'보다 길다는 것이고, 이 내용을 종합하면 '온도 ↑ → 길이 ↑'라는 비례/증감 관계를 얻을 수 있겠네요. 결국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라는 말은 '온도가 높아지면 길이도 늘어난다.'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온도 변화량'이라는 '선형 열팽창 계수'의 분모가 음수라면(=온도가 낮아지면) '길이 변화율'도 음수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곧 '나중 길이'가 '처음 길이'보다 짧아졌다는 것이니 '온도 ↓ → 길이 ↓'라는 것도 추론할 수 있겠네요. 온도가 높아지면(=열이 발생하면) '팽창'하기에(=길이가 길어지기에) '열/팽창'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⑤ #사례-원리 연결 #재진술 #이면의 정보 추론하기

이번엔 '인바'와 '알루미늄'이라는 사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둘 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데,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다고 해요. 이 정보의 이면에도 새로운 정보가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다는 것은 '온도 변화량'이 같을 때 '길이 변화율'이 작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인바는 알루미늄보다 온도에 따른 길이 변화가 작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길이가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나고, 온도가 낮아지면 길이가 상대적으로 적게 줄어드는 것이죠.

이렇게 이면의 정보까지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초반부 정보를 건디셔야 합니다. '선형 열팽창 계수'의 정의, 이것이 '양수'라는 것의 의미, 또 이것이 '작다'는 것의 의미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어놓은 채로 계속 읽어 보도록 합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④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이며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와 같은 말을 보면 그 이면의 내용을 추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추론하고 납득하는 것이 독서를 잘하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2문단

①선형 열팽창 계수가 다른, 두 종류의 물질

P와 Q를 서로 같은 두께의 두 층으로 접합

하여 평평한 띠를 만든다고 하자. ②이때 Q

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다면 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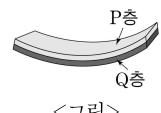
를 올렸을 때 Q층은 P층보다 더 팽창하려고 한다. ③그러나 두

층이 접합되어 있어 독립적인 팽창이 억제되므로, <그림>과 같

이 띠가 P층 쪽으로 원의 호 형태로 휘면서 팽창한 후 그 상태

를 유지한다. ④이후 다시 처음의 온도로 내리면 띠는 원래 모

양으로 돌아온다.



①~③ #사례-원리 연결 #재진술

'선형 열팽창 계수'가 다른, 두 종류의 물질 P와 Q를 서로 같은 두께의 두 층으로 접하여 평평한 띠를 만든 사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납득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이해할 준비를 해봅시다.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큰 상태입니다. 즉, 온도를 올렸을 때 Q가 P보다 길이가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인 것이죠? 3번 문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층이 접합되어 있어 독립적인 팽창이 억제되는 상황에서, 아래쪽에 있는 Q가 더 많이 늘어나려고 하면 <그림>처럼 P층 쪽으로 원의 호 형태로 휘면서 팽창할 것입니다. 이 상황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해요! 붙어 있는 두 층에서 아래 층만 더 많이 늘어나려고 하면, 당연히 하게도 <그림>처럼 휘는 모습을 보일 테니까요.

④ #사례-원리 연결 #재진술

이후 다시 처음의 온도로 '내리면', 길이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Q가 P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1문단에서 이해한 정보들을 가지고 <그림>을 바라보니 어렵지 않게 전부 납득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초반부 정보를 이용해야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②이때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다면 온도를 올렸을 때 Q층은 P층보다 더 팽창하려고 한다.

사실 굉장히 친절한 문장입니다. 1문단에서 '인바'와 '알루미늄'의 사례 속 이면의 정보를 추론하지 못했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요. 독서가 더 어려워지면 이런 형태의 문장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3문단

①물체의 힘의 정도는 곡률로 수치화할 수 있는데, 띠 또한 힘의 정도를 곡률로 나타낸다. ②띠의 길이에 비해 두께가 매우 얇고 폭이 좁아 띠를 하나의 곡선이라고 간주하면, 띠를 원의 호로 생각할 수 있다. ③이때 이 원의 호를 포함하는 원의 반지름을 휘어진 띠의 곡률 반지름이라 하는데, 곡률은 이 곡률 반지름의 역수이다. ④즉,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심하게 휘어진 것이다. ⑤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 차이가 크거나 온도 변화가 클수록 띠가 더 휘어진다. ⑥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띠를 이루는 물질에 따라 띠가 휘는 정도는 달라지며, 이를 나타내는 것이 휨 민감도이다. ⑦휨 민감도가 더 크다는 것은 같은 온도 변화량에서 띠가 더 심하게 휨을 의미한다.

①~④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이번엔 '곡률'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곡'선처럼 굽고 휨 정도를 바'울'로 수치화한 것인데, <그림> 같은 띠 또한 힘의 정도를 '곡률'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해요. 2문단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림>과 같은 띠는 원의 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의 호를 포함하는 원의 반지름을 휘어진 띠의 '곡률 반지름'이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나아가 '곡률'은 이 '곡률 반지름'의 역수라고 해요. 4번 문장이 없어도 이를 보자마자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곡률 반지름'이 작다는 건 그만큼 원의 호가 많이 휘어졌다는 의미니까요. 이 정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죠?

⑤ #재진술 #비례/증감 관계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 차이가 크거나 온도 변화가 클수록 띠가 더 휘어진다고 합니다. 즉, '곡률'이 더 크다는 것이죠. 최대한 납득해야 합니다. 2문단의 상황을 바탕으로 생각해봅시다.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가 더 커진다면, <그림>보다 Q층의 길이가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여전히 독립적인 팽창은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P층 쪽으로 훨씬 더 많이 휘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이를 "곡률이 커진다."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도 변화가 크다면 당연히 그만큼 P층과 Q층의 길이가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때 Q층의 길이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가 커진 상황과 마찬가지로 '곡률'도 커질 것 이에요. 이렇게 초반부에 시간을 많이 쓰면서 정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당연히 받아들이어야 합니다. 납득하는 정보의 양과 선지 판단의 속도가 비례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이라이트 문장

⑤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 차이가 크거나 온도 변화가 클수록 띠가 더 휘어진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이런 정보들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생과 최대한 납득하려는 학생의 차이가 3~4등급의 벽을 넘느냐 못 넘느냐를 결정합니다. 3~4등급의 벽을 넘지 못한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조금 더 능동적으로 납득하는 독해 태도를 세우려고 노력해보세요.

4문단

①띠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열을 가하면 띠가 휘면서 반대쪽 끝이 움직이는 액추에이터가 된다. ②액추에이터란 열에너지 등을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액추에이터의 설계에는 <최대 이동 거리,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 반응 완료 시간> 등이 고려된다.

①~② #정의 제시 #재진술 #카테고리 나누기

이번엔 띠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열을 가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2문단의 <그림>처럼 양쪽이 모두 휘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만든 장치를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이는 열에너지 등을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열에너지'를 '온도를 높인다'로, '기계적 동작'을 '길이가 늘어났다'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겠죠? 결국 다 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액추에이터'의 설계에는 '최대 이동 거리',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 '반응 완료 시간' 등이 고려된다고 합니다. 대놓고 카테고리를 나누면서 이에 맞춰 설명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를 기다리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5문단

①띠가 휨수록 고정되지 않은 끝의 이동 거리는 커진다. ②최대 이동 거리는 힘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어진 온도 변화량에서 띠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다. ③이 값은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④띠가 휘면서 띠의 끝이 외부에 힘을 가할 수 있는데, 이 힘은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여 힘이 완료되었을 때 소멸된다. ⑤따라서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했을 때이고, 이는 띠가 휘는 과정에서 최대의 곡률에 도달했을 때와 같다. ⑥반응 완료 시간 또한 고려해야 하는데, 반응 완료 시간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고,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

①~③ #카테고리 나누기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띠가 휨수록 고정되지 않은 끝의 이동 거리는 커집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띠를 바닥에 놔둔 상태에서 열을 가했다고 가정하면, 휘면 휨수록 원래 있던 바닥에서 점점 더 많이 이동하는 끝이 되니까요. 첫 번째 카테고리로 제시했던 '최대 이동 거리'는 주어진 온도 변화량에서 띠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렵지 않죠? 이 값은 당연히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띠가 길수록 같은 '곡률'인 경우에 '이동 거리'가 더 많겠죠. 길이가 서로 다른 두 띠를 상상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④~⑥ #카테고리 나누기 #재진술

한편, 띠가 휘면 띠의 끝이 외부에 힘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였을 때 소멸된다고 해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결국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은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했을 때 소멸되고,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했다는 것은 곧 ‘최대의 곡률’에 도달했다는 말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뻗은 소리를 나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셔야 완벽하게 독해한 거예요.

⑥ #카테고리 나누기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이번엔 ‘반응 완료 시간’이에요. 역시 단어의 의미 그대로 온도를 올려서 피가 휘는 ‘반응’이 ‘완료’되는 ‘시간’, 즉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는 피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고 합니다. 피의 두께가 얇으면 열이 훨씬 잘 전달될 것이니, ‘열팽창’도 훨씬 잘 일어나겠죠. 역시 너무나 당연한 정보였습니다.

‘액추에이터’는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고려해서 용도에 맞게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원지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기술 분석이 정말 잘 되어 있으신 겁니다. 전형적인 과학·기술 제재의 지문이었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② 최대 이동 거리는 힘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어진 온도 변화량에서 피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다.

사실 이 문단에서는 ‘하이라이트’라고 부를 만한 문장이 없습니다. 모든 문장이 4문단에서 미리 생각했던 카테고리의 나열이기에, 앞에서 답했던 내용들을 끌어오며 이해하는 것이 전부이니까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12%	13%	14%	57%

10.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⑤

- ①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는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명시적 근거	1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부피도 변화하지.
해설	‘열팽창’의 정의는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 지문에서는 ‘길이’에 초점을 맞추긴 했지만, 첫 문단부터 제시된 핵심 개념의 정의에서 나온 것이니 ‘부피’도 변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겠죠?

- ②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열을 가해 변화되었을 때의 길이를 열을 가하기 전의 길이로 나눈 값이다.

명시적 근거	1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아닌데?
해설	‘선형 열팽창 계수’의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것이었습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③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보다 그 종류가 더 많다.

명시적 근거	1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대부분 양수라며.
해설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이기에, 온도가 높아지면 길이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추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볍게 지워낼 수 있죠?

- ④ 액추에이터는 열에너지를 얻기 위해 기계적 움직임을 이용하는 장치이다.

명시적 근거	4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열에너지를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거지.
해설	‘열에너지’를 가해서 온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피가 휘는 ‘기계적 동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액추에이터’였습니다. 이렇게 ‘열팽창’의 개념과 엮어서 ‘액추에이터’의 정의를 체크했다면 이런 선지에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 ⑤ 서로 다른 물질을 두께가 같은 두 층으로 접합해 만든 피의 온도를 올릴 때, 피의 두께가 얇을수록 힘이 빨리 완료된다.

명시적 근거	5문단 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두께가 얇을수록 반응 완료 시간이 짧지.
해설	피의 두께가 얇을수록 열이 잘 전달되어 ‘열팽창’도 잘 일어날 것이고, 결국 ‘반응 완료 시간’도 짧을 것이라는 점, 마지막 문단을 읽으면서 미리 했던 생각입니다. 그 내용 그대로 선지화되어 있으니 가볍게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9%	12%	44%	24%	11%

11. 뒷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 ①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에 열을 가하면 길이가 줄어든다.

명시적 근거	1문단 2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겠지.
해설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라면, 온도 변화량이 양수일 때 분자인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이 음수여야 하고, 이것이 음수가 되려면 ‘나중 길이’가 ‘처음 길이’보다 짧아야 합니다. 즉, 온도가 높아지면 길이가 줄어드는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라고 했고, 이를 통해 온도가 높아지면 길이도 늘어난다는

	점을 생각했으면 음수일 때는 반대로 되겠다는 추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개념의 정의로 해결하든, 지문을 읽으면서 미리 했던 '생각'으로 해결하든 하면 되는 거예요.
--	--

- ② 온도에 따라 길이 변화가 작아야 하는 부품에는 알루미늄보다 인바가 더 적합하다.

명시적 근거	1문단 2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인바의 선형 열팽창 계수가 더 작으니까 맞는 말이네. 미리 생각한 내용 그대로구나.
해설	'온도에 따라 길이 변화가 작다.'라는 말은 곧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다.'라는 말과 같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바'와 '알루미늄'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생각을 했었죠? 이렇게 지문에서 해야 할 생각을 미리 하면 선지 판단의 속도가 아주 빨라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 ③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이루어진 띠를 만들고 온도를 내리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물질 쪽으로 휜다.

명시적 근거	1문단 2번~3번 문장, 2문단 1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온도를 내리면 반대로 Q층의 길이가 많이 줄겠네.
해설	지문에 제시된 P층과 Q층의 상황과 같은 상황에 대해 묻고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P층에 비해 Q층의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큰 상태입니다. 즉,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가 더 크다는 것이죠. 여기서 온도를 내리면, Q층의 길이가 P층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2문단의 <그림>과는 반대로 Q층 쪽으로 휘는 띠의 형태가 나타나겠죠? 지문의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 묻고 있으면서 결과는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완전히 틀린 선지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 심화

그런데 사실 이 선지는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가 모두 양수일 때'를 상정한 풀이입니다. 그렇다면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가 모두 음수일 때'와 '한 물질은 양수이고 한 물질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미리 생각해보시면 좋겠죠?

- 1) 두 물질 모두 음수일 때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일 때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이 클수록 그 값이 작아집니다. 온도 변화량을 -10°C , 처음 길이를 10cm로 놓고 '나중 길이'는 P층이 30cm, Q층이 20cm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P층의 '길이 변화율'은 $\frac{30-10}{10}$ 으로

2이고,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선형 열팽창 계수'는 $\frac{2}{-10}$ 로 -0.2

가 됩니다. 한편, Q층의 '길이 변화율'은 $\frac{20-10}{10}$ 로 1이고, 이

를 바탕으로 계산한 '선형 열팽창 계수'는 $\frac{1}{-10}$ 로 -0.1이죠.

이처럼 '선형 열팽창 계수'가 더 작은 P층의 '온도에 따른 길이 변화율'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온도를 내려도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큰 Q층 쪽으로 휘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P층은 많이 늘어나고, Q층은 조금 늘어나니까요. 즉, 앞서 생각한 상황과 같은 결과가 나오기에 3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죠.

- 2) 한 물질은 양수이고 한 물질은 음수인 경우

이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Q층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양수이고 P층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음수인 경우, 온도를 내렸을 때 Q층은 길이가 줄어들 것이고 P층은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똑같이 Q층 쪽으로 휘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3번 선지는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선형 열팽창 계수'라는 개념 자체의 정의를 생각하면 당연하기에 굳이 떠올릴 필요는 전혀 없는 내용이지만, 선지에서 '양수/음수' 여부를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생각의 힘'을 키우는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 ④ 열팽창으로 길이가 늘어난 두 물체의 길이의 변화량이 같다면 팽창 전의 길이가 더 긴 물체의 길이 변화율이 더 작다.

명시적 근거	1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분자가 같을 때 분모가 크면 값은 작아지지.
해설	'길이 변화율'은 ' $\frac{\text{길이의 변화량}}{\text{처음 길이}}$ '로 구합니다. 선지에서 말하는 건 분자인 '길이의 변화량'이 같은 상황에서, 분모인 '처음 길이'(=팽창 전의 길이)가 더 길면 당연히 그 값인 '길이 변화율'은 작아지겠죠? '길이 변화율'이라는 개념의 정의와 함께 기본적인 수학적 연산을 할 수 있는지 묻는 선지였네요.

- ⑤ 한쪽 끝이 고정되고 길이가 다른 평평한 두 띠가 동일한 곡률로 휘었다면 길이가 긴 띠의 끝의 이동 거리가 더 길다.

명시적 근거	5문단 2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길이가 길수록 이동 거리는 길지.
해설	두 개의 '액추에이터'가 동일한 곡률로 휜 상황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 이동 거리'에 대한 정보를 납득하는 과정에서 띠의 길이가 길수록 '최대 이동 거리'도 길 것이라는 점을 추론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를 적용하면, 동일한 곡률로 휘었을 때 길이가 긴 띠의 끝의 '이동 거리'가 더 길 것이라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길이가 길수록 바닥에서 더 많이 일어나야 하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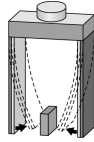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2%	20%	30%	21%	7%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①

- 현란한 그림과 <보기>의 길이에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시험장에서는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인데 시간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분하게 정리하고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만든, 두 종류의 띠 a와 b가 있다.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는 b가 a보다 크고, 두께와 길이는 a, b 모두 같다. 이 띠를 활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띠가 안으로 휘어 물체를 잡는 집게를 만들었다. a를 두 개 사용한 것은 집게 A이고, b를 두 개 사용한 것은 집게 B이다. 온도 T_0 에서 A와 B의 모든 띠는 평평한 형태였다. 이후 온도를 T_1 로 올렸을 때는 B만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T_0 에서 T_1 보다 높은 온도인 T_2 로 온도를 올렸을 때는 A도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단, 선형 열팽창 계수 차이, 온도 변화 외에 힘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 a와 b라는 두 물질을 접하여 두 층으로 만든 띠가 있는데,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가 a보다 b가 더 큰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b의 '휨 민감도'가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온도 변화량이 같을 때 b가 훨씬 더 많이 휨 것입니다.

이러한 a를 두 개 사용한 집게 A와 b를 두 개 사용한 집게 B를 '액추에이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도 T_0 에서 A와 B의 모든 띠는 평평했는데, 온도를 T_1 으로 올리자 B만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해요. 당연한 말이지요? b의 '휨 민감도'가 a보다 높은 것이니, 온도를 조금만 올려도 B는 많이 휘어서 집게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온도를 T_2 로 올렸을 때는 B는 물론 A도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해요. 온도를 많이 올리니까 더 많이 휘어서 물체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b의 '휨 민감도'가 a보다 크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보기>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 ① T_0 에서 T_1 로 올렸을 때보다 T_0 에서 T_2 로 올렸을 때, a와 b 모두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의 곡률은 더 크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5문단 4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T_2 로 갈 때 최대 이동 거리까지 더 많이 휨 테니까 당연한 말이지.
해설	<보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T_0 에서 T_1 으로 올렸을 때보다 T_0 에서 T_2 로 올렸을 때 a와 b 모두 더 많이 휘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것은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여 '최대의 곡률'에 도달했을 때인데, 그렇다면 T_0 에서 T_1 으로 올렸을 때보다 T_0 에서 T_2 로 올렸을 때 a와 b 모두 '최대 이동 거리'에서 더 큰 '곡률'을 가지겠죠. 어렵게 설명했지만, 결국 T_0 에서 T_1 으로 올렸을 때보다 T_0 에서 T_2 로 올렸을 때 a와 b가 모두 더 많이 휘었다는 말일 뿐입니다. 가볍게 답으로 고르면 되겠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사람의 한계가 된다.

- ② T_0 에서 T_1 로 올렸을 때, a와 b 각각의 힘이 멈춘 시점에서의 a의 곡률 반지름은 b의 곡률 반지름보다 작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3문단 3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a가 더 적게 휘었으니 곡률 반지름은 크겠지.
해설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심하게 휘어진 것이라는 점, 지문에 명시적으로 나오기도 했고 우리가 납득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a는 항상 b보다 적게 휘기 때문에, '곡률 반지름'도 T_0 상황을 제외하면 항상 클 것이예요.

- ③ T_0 에서 T_1 로 올렸을 때, A와 B 각각의 동작이 멈추는 데 걸린 시간이 서로 같았다면 b의 반응 완료 시간이 a보다 짧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5문단 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같은 거지.
해설	'반응 완료 시간'은 그 정의 자체가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입니다. A와 B 각각의 동작이 멈췄다는 것은 띠가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했다는 뜻이고,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서로 같았다는 것은 '반응 완료 시간'이 같다는 의미인 것이죠. 결국 또 개념의 정의를 정확히 체크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 ④ T_0 에서 T_2 로 올렸을 때, a의 최대 이동 거리가 b보다 더 크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5문단 1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b가 훨씬 더 많이 휘지.
해설	<보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b가 a보다 많이 휨다.'입니다. 즉, b의 '최대 이동 거리' 역시 a보다 크다는 것이죠. a는 T_2 가 되어야 비로소 도달했던 물체에 b는 T_1 에서부터 도달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죠.

- ⑤ B와 달리, T_2 가 되어야 A가 물체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a가 b보다 휨 민감도가 크기 때문이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3문단 6번~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반대로 얘기하고 있네.
해설	b가 a보다 '휨 민감도'가 크다는 것, <보기>에서 이야기한 한마디였습니다. 이걸 반대로 설명하고 있으니 틀린 선지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0%	4%	4%	8%	4%

13. ㉠, ㉡의 의미로 쓰인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 ㉠: 그는 이 실험에서 예측한 근사치를 얻었다.
 ㉡: 그는 은퇴한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 ㉠: 그는 친구의 도움에 용기를 얻었다.
 ㉡: 곧 그에게 발표할 차례가 돌아온다.
 ㉢ ㉠: 그는 열심히 일해 지금의 결과를 얻었다.
 ㉡: 그는 지름길을 두고 먼 길로 돌아왔다.
 ㉣ ㉠: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얻었다.
 ㉡: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온다.
 ㉤ ㉠: 그는 가족의 열렬한 호응에 자신감을 얻었다.
 ㉡: 우리 부서에 적은 돈이 뭉으로 돌아왔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④ 카테고리 나누기 : 정보들의 범주가 나뉠 때, 그들이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 카테고리에 맞춰 정보를 정리하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⑤ 초반 정보 견디기 :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초반부에 정보를 잔뜩 던지고, 후반부에는 그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논의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초반부의 정보만 잘 견디면 뒤에서 편해집니다.

⑥ 비례/증감 관계 :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납득하며 읽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없이 적혀 있는 그대로 정리하기만 하면 최근의 어려운 지문/문제들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예요.

지문 내용 총정리

어릴 때 과학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말들의 향연이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정보량이 너무나 많은 힘든 지문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결국 초반부에 쏟아지는 정보량을 버텨내고, 그걸 바탕으로 후반부 내용을 당연한 것으로 납득해나가는 전형적인 과학 지문의 형식이었어요.

생각의 전개 <인문 제재의 지문 읽기>

2026.11 [14~17] 인문 '인격의 동일성' ☆☆☆☆☆

1문단

①철학에서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인격', 그중 '나'를 '자아'라고 한다. ②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반이다. ③우리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동일한 인격이기에 과거에 내가 한 약속을 현재의 내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④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⑤'주관'은 인식의 주체를 가리키며, '인식'은 '알'을 말한다.

①~③ #수식된 정의 제시 #화제 제시 #사례-원리 연결

'인격'과 '자아'라는 개념을 정의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곧 '인격'이라고 부르고, 그 인간들 중 '나'를 '자아'라고 부른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뜻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정의해주는 것으로 보아, 이 정의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

다. 아무튼, 이러한 '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반이라고 해요. 일단 하고 싶은 이야기, 즉 화제가 제시된 것으로 보이죠? 우리는 이제부터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해해볼 것입니다.

이 개념이 살짝 추상적인데, 3번 문장의 사례를 이용하면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즉 '자아'가 동일한 '인격'이기에 과거에 내가 한 약속을 현재의 내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하죠. '판단'과 같은 '생각'을 하려면 일단 '자아'라는 '인격'이 '동일'하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자아'와 현재의 '자아'가 서로 다른 '인격'이라면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의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이는 '생각'이라는 행위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테니까요. 이렇게 나름의 논리를 만들면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⑤ #주장 제시 #재진술 #정의 제시

'칸트'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이전, 이렇게 중요한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은근슬쩍 '생각하는 나', 즉 '생각하는 자아'를 '영혼'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러한 '영혼'이 '단일한 주관'(=언제나 동일한 주체)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본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앞에서 이해한 '인격의 동일성'과 같은 말을 하고 있기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주관'은 인식의 주체를, '인식'은 '알'을 말한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뜻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굳이 엄밀하게 정의하고 있으니 잘 체크해둬야겠죠? 정리하면, '칸트 이전'에는 '영혼'이 '단일하게 존재하는 앎의 주체'로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인문 지문에서는 이러한 '한마디'가 제일 중요하니, 확실하게 체크해놓고 넘어가도록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②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반이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화제를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물론 뒤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제시되면서 화제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를 인식한 상태로 글을 읽을 준비를 해야 해요.

2문단

①그러나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의식'은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②그러한 조건 자체는 무언가가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③그렇기에 자기의식은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즉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고,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

①~③ #주장 제시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본격적으로 '칸트'의 주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나는 생각한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음을 '의식'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자기의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인식'(=앎)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많이 어렵지만, 천천히 앞 문단의 내용과 연결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봐야 합니다. '칸트 이전'에는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한다는 전제를 했어요. 즉, '영혼'이 '인식의 주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칸트'가 말하는 것은, '자기의식'을 하는 주체인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이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하나의 '조건'일 뿐이니 정말로 '영혼'이 실재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3번 문장의 내용이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해요. '생각하는 나', 즉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재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있는 '전제'가 아니라 그냥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건'으로 달면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이 열리겠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실재한다고 '전제'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어렵네요.

중요한 것은, 최소한 '칸트'는 '칸트 이전'과는 달리 '영혼의 실재함'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것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칸트'는 이 한마디만 반복할 것이니까요.

하이라이트 문장

③그렇기에 자기의식은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즉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고,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

지문이 지나치게 불친절하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완벽하게 납득하는 것이 많이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칸트'가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칸트 이전'과의 큰 차이점이니깐요.

①이를 바탕으로 칸트는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한다. ②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와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두 전제 모두 납득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전제들로부터 [A]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③첫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한다는 뜻이지만,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와 다름없는 두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무언가가 꼭 실재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① #주장 제시 #재진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칸트는 '영혼=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합니다. '영혼'이 '동일한 인격'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 '칸트 이전'의 생각이었는데, '칸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앞에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영혼'이 실재하는지 보장할 수 없기에 '인격'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식의 논리가 제시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②~③ #주장 제시 #재진술

'칸트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와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두 전제를 제시합니다. '칸트는 이 두 전제 모두 납득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로부터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고 해요. 첫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인격)에 대해 의식한다는 뜻이지만, 두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무언가(영혼)가 꼭 실재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칸트는 '영혼은 실재하지 않는다.'라는 한마디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해요.

생각 심화

조금 더 깊게 이해해봅시다. 'A는 B이다.', 'C는 B이다.'라는 두 전제가 참일 때, 우리는 'A는 C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칸트의 첫 번째 전제를 재구성하면 '인격은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한다.'이고, 두 번째 전제는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입니다. 즉, '칸트 이전'에는 이 두 전제가 모두 옳고,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한다=자기의식을 한다'로 봤기에 '인격=영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네요. 이에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인격' 역시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하는, '동일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칸트는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한다=자기의식을 한다'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3번 문장의 내용을 가져 오면, 첫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무언가가 꼭 실재함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다시 말해 두 전제에 사용된 '의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두 전제가 옳다는 것으로부터 '인격은 영혼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첫 번째 전제는 1문단에서 제시된 '칸트 이전' 사람들의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주장 그 자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영혼'이라는 것이 '동일한 인격'으로서 존재한다는 '전제'를 했어요. 즉, 첫 번째 전제에서의 '의식'은 분명히 실재하는 대상으로 전제된 '인격의 동일성'에 대해 생각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전제의 '의식'은 그냥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한, 다시 말해 그 주체인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을 한다는 의미예요. 2문단 내용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요컨대, '칸트는 첫 번째 전제에 쓰인 '의식'과 두 번째 전제에 쓰인 '의식'은 각각 '실재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실재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그 뜻이 다르기에, 이를 바탕으로 '인격=영혼'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정말 어렵지만 지문 속 내용만을 가지고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니, 여러 번 읽어보면서 확실하게 이해해보도록 합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①이를 바탕으로 칸트는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한다.

이것이 결국 '영혼이 실재하는지 보장할 수 없다.'는 '칸트의 한마디와 같은 말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지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한 사람은 한마디만 합니다!

4문단

①칸트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②그래야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등의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③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데, 이러한 구성은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①~③ #주장 제시 #재진술 #비교/대조 #화제의 흐름

'칸트는 결국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영혼의 실재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칸트 이전'까지는 이걸 '영혼의 존재로 증명하려고 했는데, '칸트'에 의해 그 논리가 깨진 상태이니까요.

그래서 '칸트는 그것을 증명하기보다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을 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이라는 '단일한 주관'이 실재하는 건 증명할 수 없으니, 통시적으로 마주치는 여러 인식의 주체들을 '자아'가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치자는 것이죠.

'칸트는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가정을 하는 것일까요? 이는 1문단에서 이야기했듯이, '인격의 동일성'을 부정해버리면 '생각의 구성'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인격의 동일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엄밀하게 증명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가정'을 통해서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 '칸트의 주장인 것이죠. 결국, '칸트의 한마디인 '영혼이 실재하는지 보장할 수 없다.'는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려면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 복수의 주관을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가정을 해야 한다.'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마디

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다면, ‘칸트’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정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정보는 화제 중심으로 모이기 마련이니까요.

하이라이트 문장

③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데, 이러한 구성은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이라는 화제와 연결지어서 ‘칸트’의 주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 사람은 한마디만 하는데, 이 한마디는 결국 화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합시다.

5문단

①스트로슨은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철학적 상상에 불과하다고 칸트를 비판한다. ②인격의 문제에서 신체를 간과한 칸트와 달리, 스트로슨은 인격을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로 본다. ③스트로슨에 따르면,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며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되는 것이다. ④그러므로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⑤자기의식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존하기에,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칸트의 견해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① #주장 제시 #재진술 #비교/대조 #화제의 흐름

이번엔 ‘스트로슨’이라는 사람의 주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해요. 일단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칸트’가 구별한 것은 첫 번째 전제와 두 번째 전제였습니다. 여기서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은 두 번째 전제에, ‘경험적 인식의 방식’은 첫 번째 전제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인격’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을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방식과, ‘영혼’이라는 실재하는지 보장할 수 없는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은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었니까요. ‘스트로슨’은 이 지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철학적 상상에 불과하며 ‘칸트’를 비판하고 있어요. 이걸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죠. ‘증명’이 어려우니 ‘가정’을 하자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상상력에 의존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스트로슨’은 어떤 방법으로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할까요? 이렇게 화제 중심으로 인물의 주장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②~③ #비교/대조 #주장 제시 #재진술

‘칸트’는 ‘인격’의 문제에서 ‘신체’를 간과하고 ‘영혼’ 혹은 ‘주관’에만 집중했었습니다. 그런데 ‘스트로슨’은 ‘인격’을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로 재정의하고 있어요.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며, ‘자아에 대한 인식’ 역시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이번에도 앞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이해해봅시다. ‘스트로슨’은 ‘칸트’와 마찬가지로 ‘자아에 대한 인식’과 ‘경험적 인식’을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구별합니다. ‘칸트’는 이들이 그냥 다르다고만 했는데, ‘스트로슨’은 ‘경험적 인식’을 바탕으로 추상화되어 ‘자아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즉, 둘은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선행하는 조건 / 후행하는 결과’라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④~⑤ #주장 제시 #재진술 #화제의 흐름 #비교/대조

결국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는 것이 ‘스트로슨’의 주장입니다. ‘신체’를 통해 ‘경험’을 해야 비로소 자신의 ‘인격’이 ‘통시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칸트’는 ‘자기의식’을 ‘인식’이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상정했는데, ‘스트로슨’이 보기에는 ‘자기의식’ 역시 ‘경험’을 해야 비로소 가능하기에 ‘자기의식’이 단독으로 ‘인식’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트로슨’은 ‘신체’를 통한 ‘경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이를 바탕으로 ‘자아에 대한 인식’, ‘자기의식’,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 등 추상적인 인식들이 가능하다는 한마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화제와 직결되는 한마디만 기억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④그러므로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인물의 한마디는 결국 화제와 연결됩니다. 화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로부터 인물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해내는 것이 인문 제재의 지문을 읽어나가는 방법이에요.

6문단

①통게네스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없이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조차 없으므로,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②하지만 그는 자아와 인격이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③통게네스는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며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는 칸트의 견해를 인정한다. ④그러나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을 뜻한다. ⑤그러려면 신체가 있고 살아 있어야 하므로,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각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통시적으로 인식하는 신체라고 통게네스는 주장한다.

①~② #주장 제시 #재진술 #비교/대조

이번엔 ‘통게네스’라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스트로슨’의 주장처럼 ‘경험’으로부터 ‘자아에 대한 인식’이 추상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아에 대한 인식’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통게네스’는 ‘자아’와 ‘인격’이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결국 또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화제 중심으로 정리되겠지만, 일단 이렇게 ‘통게네스’의 주장을 체크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생각 심화

1번 문장과 2번 문장은 왜 ‘하지만’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번 문장은 ‘스트로슨’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반해 2

번 문장은 '스트로슨'처럼 '경험'을 중시하는 입장이기에 '하지만'을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만, 1번 문장이 결국 '칸트'에 대한 옹호라는 점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아에 대한 인식'을 '경험'보다 더 근원적인 것으로 본다는 것은, '스트로슨'이 '칸트'의 주장을 비판했던 지점을 재반박한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하지만 2번 문장의 내용은 '칸트'를 다시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신체'를 간과하고 '주관'이라는 개념으로 '인격'을 설명하려고 한(=인간 외에도 '주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주체들에 '인격'을 적용할 수 있는) '칸트'와는 달리, '롱게네스' 역시 '신체'를 매개로 한 '경험'을 강조하며 '자아'와 '인격'이 인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깐요. 1번 문장에서 '칸트'를 옹호하다가 2번 문장에서는 '칸트'를 비판하고 있기에 '하지만'이 쓰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③~④ #비교/대조 #주장 제시 #재진술

'롱게네스'는 다시 한번 '칸트'의 견해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며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죠. 이는 지문에 제시되지 않았던 '칸트'의 새로운 주장을 재진술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확실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롱게네스'가 생각하는 '자율성'은 시공간적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칸트'는 이와 다른 방식으로 '자율성'을 정의한 것이겠죠? 나아가 '시공간적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경험'한다는 것은 '스트로슨'의 주장과 '진짜로' 같은 말이기 때문에, 결국 '롱게네스'도 '스트로슨'과 같은 맥락에서 '칸트'를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⑤ #주장 제시 #재진술 #화제의 흐름

이렇게 '자율성'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서 '경험'을 하려면, '신체'가 있고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걸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인격의 동일성'을 논하는 기준은 결국 각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통시적으로 인식하는 '신체'라는 게 '롱게네스'의 주장이었어요. 일단 '신체'를 가지고 살아 있는 '인간'이어야 '자율성'을 가지며 시공간적 세계를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인간'에게만 '자아'와 '인격'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할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인간'들이 자신의 것(=자율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이라고 인식하는 '신체' 개념에서 '인격의 동일성'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화제 중심으로 주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⑤그러려면 신체가 있고 살아 있어야 하므로,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각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통시적으로 인식하는 신체라고 롱게네스는 주장한다.

같은 말 계속 반복하려니 귀찮네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죠? 화제 중심으로 납득한 '한마디의 주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8%	13%	22%	54%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⑤

① 칸트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영혼의 실재를 보장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아니라는 게 핵심이었는데?
해설	'칸트'는 '자기의식'은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고, 이게 '칸트'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이걸 반대로 설명하고 있네요.

② 칸트에 따르면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과 독립적이다.

명시적 근거	4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생각의 구성이 시간의 흐름을 따르기 때문에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이 중요하다고 했지.
해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대로입니다. '칸트'는 '인격의 동일성'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특정한 '가정'을 통해서라도 '통시적인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생각의 구성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단순히 4문단 3번 문장의 근거를 찾아서 눈알 굴리기로 해결하기보다는, 이렇게 '납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워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③ 스트로슨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명시적 근거	5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건 잘못된 거라고 했지.
해설	'스트로슨'은 '자기의식' 역시 '경험'에 의존하는 것일 뿐이기에, '자기의식'을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존하는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본 '칸트'의 주장은 잘못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과 반대로 적혀 있네요.

④ 스트로슨에 따르면 의식을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명시적 근거	5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경험은 신체를 매개로 하는 거지.
해설	'스트로슨'은 '신체'를 중요시하면서,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기에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의식'을 매개로 '경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건 '칸트'였죠?

- ⑤ 롱게네스에 따르면 살아 있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의 선택에 필수적이다.

명시적 근거	6문단 4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핵심 주장이네.
해설	‘롱게네스’의 핵심 주장을 요약해 놓은 선지입니다. ‘신체’가 있고 살아 있어야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의 ‘선택’을 하며 ‘자율성’을 지닌 인간으로 살 수 있기에, ‘신체’가 인간에만 적용되는 개념인 ‘인격의 동일성’ 논의의 기준이라는 것이 ‘롱게네스’의 주장이었어요. 가볍게 답으로 골라주셔야 합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3%	11%	21%	11%	24%

15. [A]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유형이 특정 문단에만 적용되어 출제된 모습입니다. 지문 전체에 대해 묻는 문제를 풀 때와 똑같이, 결국 핵심적인 정보(화제)를 찾으면 됩니다.

[A]는 ‘칸트’가 두 전제에 사용된 ‘의식’이라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바탕으로 ‘영혼≠인격’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첫 번째 전제의 ‘의식’은 실재하는 것에 대해 의식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 전제의 ‘의식’은 반드시 실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것에 대해 의식한다는 뜻이어서 둘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었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찾아봅시다.

- ① ‘두 전제’를 연결하는 개념의 함의는 실재성과 관련하여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를까?

명시적 근거	3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거네.
해설	바로 정답이네요. ‘두 전제’를 연결하는 개념인 ‘의식’의 함의가 ‘실재성’과 관련하여 어떤 점에서 다른지 다루는 것이 [A]였어요. 우리가 미리 생각했던 내용을 다소 쉽게 제시한 모습입니다.

- ②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은 어떤 점에서 반박되고 있을까?

명시적 근거	5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아직 저 얘기 하기도 전인데?
해설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은 4문단에야 제시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반박되는 양상은 5문단의 ‘스트로슨’의 주장에서나 나왔죠? [A]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③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견해인 근거는 무엇일까?

명시적 근거	2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애초에 실재할 가능성은 열려 있지.
해설	일단 ‘칸트’는 ‘자기의식’으로는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을 뿐,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봤습니다. 애초에 틀린 말이기에 답이 될 수 없죠? 만약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이 아니라 ‘영혼의 실재함’에 대해서 묻는 선지였다 해도, 지문 속에서 이것이 납득할 수 없는 견해인 근거는 [A] 부분이 아닌 2문단(자기의식은 인식의 조건 중 하나에 불과)에 나왔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겠어요.

- ④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이 ‘직접 증명’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받아 들여야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명시적 근거	4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칸트는 그런 견해를 말한 적이 없지.
해설	‘칸트’는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직접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여야 하는 근거가 ‘칸트’의 주장을 설명하는 [A]에서 제시되었을 리가 없죠?

- ⑤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전제가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라는 전제와 다름없는 근거는 무엇일까?

명시적 근거	1문단 4번 문장, 2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건 영혼이랑 자기의식의 정의 때문이지.
해설	‘영혼’은 ‘생각하는 나’를, ‘자기의식’은 ‘나는 생각한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전제는 곧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라는 전제와 다름이 없었던 것이었죠? 이에 대한 답은 1문단과 2문단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지, [A]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틀린 선지입니다.

해설지이기 때문에 다른 선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긴 했지만, 시험장에서는 1번 선지를 미리 생각해놓고 보자마자 답으로 고른 채 넘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특정 부분에 대해 묻는 문제는 주관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	43%	22%	13%	15%

16. 다음은 윗글을 읽고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핵심 개념 1】 자아에 대한 인식과 경험적 인식

- 칸트 :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과 시공간적 세계의 대상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은 다르다고 본다. ①

명시적 근거	5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스트로슨이 여기에 동의했지.
해설	‘스트로슨’은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과 ‘경험적 인식의 방식’이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했습니다. 각 방식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면서 확실하게 납득했던 기억이 있으니,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겠지요?

【핵심 개념 1】 자아에 대한 인식과 경험적 인식

- 스트로슨 : 시공간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적 인식은 자아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고 본다. ②

명시적 근거	5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경험적 인식이 먼저라는 게 스트로슨의 핵심이지.
해설	‘스트로슨’의 핵심 주장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된 것들이 ‘자아에 대한 인식’이나 ‘자기의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체’를 매개로 하는 ‘경험’이 가장 근원적이라는 것이 ‘스트로슨’의 핵심 주장이었는데, 반대로 ‘경험적 인식’이 ‘자아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니 틀린 선지네요. 결국 핵심 주장을 인식하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된 모습입니다.

【핵심 개념 2】 추상화 과정

- 롱게네스 : 경험으로부터의 추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③

명시적 근거	6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롱게네스는 자아에 대한 인식이 우선하는 것으로 봤지.
해설	‘롱게네스’는 ‘스트로슨’과 달리 ‘자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지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핵심 개념 3】 통시적 인격과 도덕적 존재

- 칸트, 롱게네스 :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을 수용한다. ④

명시적 근거	6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칸트의 새로운 주장이었지.
해설	‘롱게네스’가 인정한다고 하며 제시되었던 ‘칸트’의 새로운 주장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체크했던 기억이 있죠?

【핵심 개념 3】 통시적 인격과 도덕적 존재

- 칸트, 스트로슨, 롱게네스 : ‘시간의 흐름 속 동일한 인격’으로서의 ‘나’라는 개념을 수용한다. ⑤

명시적 근거	지문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화제지.
해설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은 이 지문의 화제입니다. 셋 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주장을 펼쳤었죠? 그렇기에 셋 다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수용한다는 건 맞는 말이 되겠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9%	16%	37%	26%	12%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③

갑 :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하여 프로그램으로 재현한다고 상상해 보자. 그런 경우,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야.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은 신체 전체의 기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지. 즉,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인격일 수 없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고, 살아 있는 신체도 인격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하거든.

- ‘갑’은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하여 프로그램으로 재현한 경우,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이 ‘신체 전체의 기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고, 살아 있는 ‘신체’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스트로슨’과 ‘롱게네스’의 견해 모두와 대응되는 입장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을 : 그렇지 않아.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본래의 자신과 동일한 인격이야. 비록 프로그램은 신체가 없지만 우리 두뇌와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사고 기능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거든. 인격의 동일성은 어떤 가정도 두지 않고 이러한 사고 기능의 동일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

- ‘을’은 이러한 ‘갑’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체’와는 무관하게, ‘사고 기능의 동일성’만이 보장되면 ‘동일한 인격’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문 속에서 ‘사고 기능의 동일성’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없기에 지문과 정확하게 대응되지는 않지만, ‘신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칸트 이전’ 및 ‘칸트’의 입장과 살짝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세한 건 선지를 판단하면서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① 롱게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만으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갑의 입장은 옳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6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갑이 언제 저런 말을 했냐.
해설	일단 ‘롱게네스’는 갑의 입장을 옳다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갑’이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만으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죠? ‘롱게네스’가 인정하는 ‘갑’의 주장은 ‘신체’가 ‘인격’의 구성 요소라는 점이었습니다.

② 스트로슨의 견해에 의하면,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에게 인격이 귀속될 수 없다는 을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5문단 3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을은 저렇게 말 안 했는데?
해설	일단 ‘스트로슨’은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에게도 ‘인격’이 귀속될 수 있다는 ‘을’의 입장을 옳지 않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에서는 ‘을’이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에게 ‘인격’이 귀속될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했네요. 1번 선지와 마찬가지로, 지문을 볼 것도 없이 애초에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틀린 선지입니다.

③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1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칸트 이전에는 영혼을 중시했으니 갑의 입장은 옳지 않다고 보겠네.
해설	‘칸트 이전’에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으로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고, 살아 있는 ‘신체’도 ‘인격’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칸트 이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갑의 입장’을 옳지 않다고 보겠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사람의 한계가 된다.

④ 칸트의 견해에 의하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은 그것에 대한 가정이 선행될 필요 없이 사고 기능의 동일성을 통해 판단된다는 을의 입장은 옳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4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칸트는 가정하자고 했는데?
해설	‘칸트’는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은 그것에 대한 ‘가정’이 선행될 때 설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이러한 ‘가정’이 선행될 필요 없이 ‘사고 기능의 동일성’만으로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는 ‘칸트’의 입장에서는 절대 옳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⑤ 롱게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과 상이한 존재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수행될 수 있는 사고 기능이 인격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을의 입장은 옳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4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롱게네스는 인간만 인격 이야기 하자고 했지.
해설	‘롱게네스’의 핵심 주장은 ‘자아’ 및 ‘인격’이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프로그램’과 같은 인간과 상이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사고 기능의 동일성’이 있으면 ‘인격의 동일성’도 존재한다고 봤어요. ‘롱게네스’의 입장에서 이러한 ‘을’의 입장이 옳지 않다고 보겠죠.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④ 비교/대조 : 비교되는 대상이 나오면, ‘공통점’과 ‘차이점’ 중심으로 읽어 나가면 됩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문제가 어렵지 않게 출제된 데다 정답 선지가 선명해서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그리 어렵다는 생각을 하기 어려운 지문입니다. 하지만 지문 해설에서 느끼셨듯이, 제대로 납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는 답을 맞히기 위함이 아니라 '생각의 힘'을 키우기 위함이니, 지문 해설 이상으로 이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의 힘'을 정말 크게 키울 수 있는 좋은 지문이었으니까요.

생각 워크북 <산문문학 해결하기>

2026.11 [18~21] 고전소설 '수궁가' ☆☆

<보기> 확인

선생님: 「수궁가」는 우화에서 판소리 사설로 발전한 작품입니다. 동물들이 인물로 등장하는 우화 속 세상에 청중의 현실 속 다양한 요소를 중첩하는 방식으로 이야기의 변모가 이루어졌어요. 이로써 부정적 면모를 지닌 다양한 인간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거나, 현실감을 부여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강조하거나, 현실이라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것으로 과장되게 표현하여 청중의 흥미를 높였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궁가'입니다. 판소리 사설인데, 이러한 양식을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거나, '현실감을 부여'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강조하거나, '과장되게 표현'하는 등 청중의 흥미를 높이기 위한 여러 장치를 사용했다고 해요. 모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이 보이면 체크할 준비를 하면서 지문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지문 독해

[중모리] 그때에 자짐이 발론하되 근대 인간이 하 무서워 짐승을 잡아먹기 온갖 피가 다 생기고 산중에 수목이 없어 은신할 곳 없어지니 자기 의견 들어 보면 방책이 있을런가 이 모임을 했사오니 수령님의 좋은 꾀를 일러 주옵소서

[아니리] 호랑이가 수령 말을 듣더니마는 거드름을 피우며 오늘은 노소고하를 막론하고 자세히 말해 보라 토끼가 여짜오되

[자진모리] 사냥개라 하는 것은 같은 우리 모족(毛族)으로 사람 집에 기식하니 제 무슨 아침으로 내 잘 맡는 자랑하여 심산궁곡 층암절벽 찾고 찾아 들어와 동제 간 살해만 하니 수령님 이후로는 사냥개를 있는 대로 다 잡아 잠수오면 그 덕이 모든 금수에게 미치오리다

[아니리] 호랑이 듣더니만 다 잡아 먹었으면 네 원통함도 풀고 나도 배부른 꼴을 보련마는 일등 포수가 따라다녀 어설피 물라다가 조총에 불이 번듯 탄환이 쏙 나오면 거 내 신세는 어쩔 것이냐

일단 [중모리], [아니리] 등을 보고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히 알고 있다면 활용하면서 읽어도 되지만, 평가원이 저걸 모른다고 문제를 틀리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지요. 철저하게 인물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내용을 이해해보도록 합시다.

'사슴'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최근 들어 인간이 너무 무서운데 마땅한 방책이 있을까 하여 모임을 주최했다고 하네요. '호랑이'를 '수령님'이라 부르며 좋은 꾀를 알려 달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인간에 대한 비판'이라는 '선생님의 설명' 속 내용이 제시되는 모습이지요?

어쨌든, '수령님'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아진 '호랑이'는 거드름을 피우며 아무나 말을 해보라고 하고, '토끼'는 인간과 붙어 다니는 '사냥개'를 잡아 없애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인간의 조총이 무서워 그럴 수 없다고 하네요. 천하의 '호랑이'에게도 인간은 무서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때에 별주부 저기 토 선생 계시오 부르다는 것이 수로 팔천 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오자니 아래턱이 뺏혀서 토 자가 살짝 늘어져 호 차로 되었었다 저기 호 생원 계시오 불러 놓으니 첩첩산중 호랑이가 생원 말 듣기는 제 평생 처음이라 반기 들고 내려오느되

[엇모리]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에머리를 흔들며 양 귀 찢어지고 몸은 얼송덜송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남고 동아 같은 뒷다리 전동 같은 앞다리 새낫 같은 발톱으로 엄동설한 백설 격으로 잔디 뿌리 왕도래를 좌르르르 흘으며 주홍 같은 입 벌리고 흥행행 허는 소리 산천이 진동하고 강산이 뒤눕고 땅이 푹 꺼지난 듯> 자라가 깜짝 놀래여 목을 움치고 가만히 었졌을 제

이렇게 동물들이 의논을 하고 있을 때, '별주부'가 '토끼'를 찾으러 옵니다. 그런데 '토 선생'이라고 부르려다가 발음을 잘못하여 '호 생원'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생원' 소리에 기분이 좋아진 '호랑이'가 내려옵니다. 호랑이가 내려오는 모습이 [엇모리]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데, <> 표시한 외양 묘사를 보면 '호랑이'를 아주 위엄 있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이런 모습을 본 '자라'는 당연히 깜짝 놀라 목을 움츠리고 가만히 었드립니다. '토끼'를 불렀는데 '호랑이'가 나온 상황에서 '자라'가 느낄 공포감에는 어렵지 않게 공감할 수 있겠지요?

[아니리] 호랑이가 척 내려와 이것 무엇인고 이리 보아도 동굴 동굴 저리 보아도 동굴 동굴아 하고 불려도 대답이 없었다 웬다 이것 한 입가심 하여 불가

자라가 깜짝 놀래여 여보 당신이 뉘라 허시오

호랑이 깜짝 놀래 예기 이것 보아라 도리좁치 속에 배암 잡아 넣어 놓은 것같이 생긴 것이 인사성은 밝네 나는 이 산중 지키는 호 생원 어른이로다

자라가 호랑이란 말을 듣고서 겹짐에 바로 일러 나는 명색이 자라 새끼요

[중모리] 호랑이 반기 들고 얼시구나 좋을시고 내 평생에 원하기를 왕배탕이 원일러니 오늘날 만났구나 맛진 진미를 먹어 보자 으르르르앙 하고 달려드니 자라 듣고 깜짝 놀래여 아이고 내 자라 아니요 이놈 그러면 무엇인고 내가 두꺼비요 두꺼비 같으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로 불에 살라 술에 타 먹었으면 만병회춘 명약이라니 너를 먹으리라 아이고 내 남생이요 남생이 같으면 더욱 좋다 습기에는 제일이라 하니 너를 산 채로 먹으리라

[아니리] 별주부 듣고 기가 막혀 이 급살 맞아 죽을 놈이 동의 보감을 얼마나 통달하였는지 보는 대로 약 취해 먹기로만 드니 기왕 죽을 바에는 속임수나 한번 써 보고 죽을 밖에 없구나 허고 목을 길게 내놓으며 네 이놈 호랑아 내 목 나간다

'호랑이'가 내려와 '자라'를 보고 호기심을 보이며 한 입 먹어볼까 하자, '자라'는 깜짝 놀라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호랑이'는 몸에 좋은 '자라'로 왕배탕을 끓여 먹으며 신나 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에 놀란 '자라'가 자신을 '두꺼비' 혹은 '남생이'라고 말을 바꾸자 그것도 다 몸에 좋으니 맛있게 먹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라'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상황이지요? '동의보감'을 통달했는지 보는 대로 약 취해 먹기로만 든다는 재밌는 표현을 하면서, 이왕 죽을 바

에야 속임수나 써 보고 죽어야겠다며 ‘호랑이’에게 오히려 겁을 주는 모습입니다.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의 내용이 떠오르면 좋겠어요. 약자가 강자에게 강한 척을 해서 상황을 모면한다는 점에서 거의 똑같은 장면이니까요.

호랑이 깜짝 놀래 예끼 이것 목 나온다 고만 나오시오 하루 수 천 발 나오겠소 대체 당신 명색이 무엇이오

나는 수궁 전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별나리로드 이놈 내 목 이 모양 된 내력을 들어 보아라

[자진모리] 우리 수궁 퇴락하여 영덕전 새로 질 제 일천팔백 칸 기와를 내 손으로 올리다가 추녀 끝에 툇 떨어져 목으로 잘라 꺼꾸러져 이 모양이 되얏기로 명의한즉 호랑이 쓸개를 열 보만 먹으면 목이 죽호한다기로 우리 수궁 도리랑귀신 잡아 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더니 쓸개 한 보 못 주겠느냐 도리랑귀신 게 있느냐 이 호랑이 배 갈라라 앞으로 기어 들며 도리랑 도리랑 허고 달려들어 호랑이 아랫도리를 짹 물고 뽕 돌아 놓으니

[아니리] 호랑이 질색하여 아이고 별나리 이것 좀 놓아주시오 이 놈 잔말 말고 쓸개만 내놓아라 호랑이 그 육중한 놈이 자라에게 매달려 애걸을 허느니

[중모리] 별나리 전에 비나이다 나는 오대독신으로 오십이 다 되도록 슬하 일점혈육이 없소 만일 내가 죽게 되면 선영에 죄가 망극허오 차라리 내 원눈이나 하나 빼 잡수시오 이놈 잔말 말고 쓸개만 내와라 여기만 놓아주면 당장에 쓸개를 드리리다

갑자기 ‘자라’가 목을 내놓으며 위협하자, 깜짝 놀란 ‘호랑이’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는 자신이 엄청난 존재인 것처럼 혼신을 다해서 연기를 하고 있어요. [자진모리] 부분을 일종의 ‘skip 가능 구간’으로 생각하면서 ‘자라가 살아보려고 발악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면 훌륭하겠습니다.

이에 질색한 ‘호랑이’는 ‘자라’에게 제발 놓아달라는 이야기를 하며 애걸을 합니다. 마치 인간처럼 죽으면 조상들에게 죄가 되니 살려달라며, 놓아주면 ‘자라’가 원하는 쓸개를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완전히 속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니리] 별주부 가만히 생각한즉 쓸개 주겠다고 놓아 달라는 것이 얼추점이 된 모양이라 툇 물었더니 호랑이 아랫도리를 슬 그머니 늦춰 놓으니

[휘모리] 호랑이 몽그랴다 후다닥 뛰어갈 제 급한 난리 화살 단 듯 조총에서 철환 단듯 오림에서 조조 단듯 산을 넘고 바다 건너 홀연히 간 곳 없네

[아니리] 전라도 해남에서 났다 똥 놈이 의주 압록강 가에서 숨을 내쉬고 한편을 살펴보는데 단쟁이 한 마리가 뽕조름하고 내다보니 별주부로 알았었다 예끼 저놈 그 새 저기 쫓아왔구나 게서 또 후다닥 빼 놓은 것이 함경도 세수람 고개에다 덜렁 올라앉아 장담을 허것다 내 용맹이나 된 게 여기까지 살아왔지 잡놈 같았으면 하마 그놈 뱃속에 군었으려다

- 작자 미상, 「수궁가」 -

‘호랑이’가 완전히 속았다고 판단한 ‘자라’는 ‘호랑이’를 슬쩍 놓아 주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이를 기회로 삼은 ‘호랑이’는 후다닥 도망갑니다. ‘전라도 해남’에서 ‘압록강 가’까지 났다 뛰어갔다는 내용은 ‘선생님의 설명’에서 말했던 ‘과장된 표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보기> 혹은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에서 설명한 내용과 엮을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그 와중에 ‘남생이’를 보고 ‘자라’로 착각한 ‘호랑이’는 또 급하게 도망가고, ‘함경도 세수람 고개’에서 자신의 용맹 덕에 살았으며 허세를 부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모습 역시 여러 고전소설과 고전시가에서 반복되는 클리셰이니, 반갑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	73%	7%	8%	5%

1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① 사슴이 호랑이에게 대책을 구하자 호랑이는 거드름을 부리며 다른 동물들에게 발언하게 하였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호랑이 기본 아주 좋았지.
해설	‘사슴’이 자신을 ‘수령님’이라 부른 것에 기본이 좋아진 ‘호랑이’는 거드름을 부리며 다른 동물들에게 발언하게 했습니다. ‘호랑이’의 이런 모습을 상상했다면 어렵지 않게 허용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요?

② 호랑이가 자라의 외양에 주목하여 관심을 보이자 자라는 호랑이보다 먼저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처음에는 무서워서 숨었잖아.
해설	단순히 ‘자라’보다 ‘호랑이’가 먼저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는 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토끼’를 붙렸는데 ‘호랑이’가 나오자 너무 놀라고 무서워 숨어버렸던 ‘자라’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서워서 숨고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 있게 자신을 먼저 소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으니깐요. 이렇게 수능 문학에서는 상황을 ‘상상’하고 그 속에 있는 인물들에게 ‘공감’했는지를 내용 일치의 형식으로 묻는다는 걸 잊지 맙시다.

③ 자라는 자신을 해치려고 드는 호랑이에게 목을 내밀어 놀라게 한 후 도리랑귀신을 들먹이며 맞섰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마지막 발악이었지.
해설	일종의 ‘skip 가능 구간’으로 처리했던 부분에서 등강한 내용이지요? ‘자라’가 ‘호랑이’에게 센 척을 하면서 마지막 발악을 했던 부분을 보면 ‘도리랑귀신’을 들먹이며 맞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④ 호랑이가 쓸개를 주겠다고 놓아 달라는 것을 듣고 자라는 호랑이가 얼죽집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때를 틈타서 슬쩍 놓았지.
해설	‘호랑이’가 ‘쓸개’를 주겠다고 말을 할 정도로 자신의 허풍에 제대로 속았다고 판단한 ‘자라’는 ‘호랑이’를 슬쩍 놓아 줍니다. 이 장면을 상상하며 읽었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허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 ⑤ 호랑이는 남생이가 내다보는 것을 보고 자신이 매달려 애걸했던 자라가 자신을 쫓아왔다고 생각하였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마지막까지 무서워했었지.
해설	‘압록강 가에서 ‘남생이’를 만난 ‘호랑이’는 그것이 ‘자라’인 줄 알고 깜짝 놀라 후다닥 도망칩니다. 이러한 ‘호랑이’의 모습을 상상했다면 역시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8%	13%	72%	5%

19.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나는 ㉠이 산중 지키는 호 생원 어른이로다
우리 ㉡수궁 퇴락하여 엉덕전 새로 질 제
함경도 ㉢세수람 고개에다 덜렁 올라앉어 장담을 허것다

- 이 작품에 등장한 여러 장소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은 ‘호랑이’가 왕처럼 군림하며 ‘자라’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 장소이고, ㉡은 ‘자라’가 사는 곳으로 ‘호랑이’를 속이기 위해 언급한 장소입니다. ㉢은 ‘자라’를 피해 도망간 ‘호랑이’가 마지막 허세를 부리는 장소였죠?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가볍게 답을 골라봅시다.

- ① ㉠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족의 노력이 나타나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자라와 호랑이의 화해가 이루어진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라랑 호랑이가 왜 화해해.
해설	㉠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족(毛族: 털을 가진 네발짐승)의 노력이 나타나는 공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자라’와 ‘호랑이’가 화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죠? ‘호랑이’는 ‘자라’를 무서워하면서 ㉠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② ㉡은 자라가 자신의 내력을 소개하며 언급한 공간으로, 자라는 호랑이와의 만남을 예상하고 이곳에서 이를 대비하였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전혀 예상치 못하게 만났지.
해설	㉡이 ‘자라’가 자신의 내력을 소개하며 언급한 공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라’는 ‘호랑이’와의 만남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토끼’를 만나려고 했는데 ‘호랑이’가 나오자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 ③ ㉢은 호랑이가 안도감을 나타내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호랑이는 살아남은 것을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뜻밖의 행운이라고 여겼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완전 허세 부렸는데 무슨 소리야.
해설	㉢은 ‘호랑이’가 안도감을 나타내는 공간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용맹 덕에 살아왔으며 끝까지 허세를 부리는 공간이기도 했어요. 이를 근거로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선지네요.

- ④ ㉠은 자라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위협에 빠지게 된 공간이며, ㉡은 자라가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언급한 공간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은 ‘자라’가 발음을 잘못했다는 행위로 인해 ‘호랑이’와의 만남이라는 위협에 빠지게 된 공간입니다. ㉡은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허풍을 떠는 ‘자라’가 언급한 공간이구요. 이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으니, 어렵지 않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죠?

- ⑤ ㉠은 호랑이의 지위가 다른 존재의 발언을 통해 확인되는 공간이며, ㉢은 호랑이가 다른 존재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엄을 부정하는 공간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위엄 있는 척 엄청 하고 있잖아.
해설	㉠에서 ‘사슴’은 ‘호랑이’에게 ‘수령님’이라고 부르며 ‘호랑이’의 지위를 확인시켜 줍니다. 이를 근거로 ㉠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지만, ㉢이 ‘호랑이’가 자신의 위엄을 부정하는 공간이라는 건 절대 허용할 수 없죠. 오히려 ‘잡놈’과 같은 다른 존재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엄을 강조하는 공간이 ㉢이었습시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12%	73%	5%	8%

20.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 대놓고 시간을 끌기 위해 여러 부분을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만나면 시간을 쓸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빨리 풀 수 있으면 다행이고, 오래 걸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① ㉠과 ㉤는 각기 다른 주체가 예의를 갖춘 상대의 태도에 대해 보인 반응이다.

호랑이가 생원 말 듣기는 제 평생 처음이라 ㉠ 반기 듣고 내려오는디

자라가 ㉢ 깜짝 놀래여 목을 움치고 가만히 었졌을 제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호랑이가 예의를 갖추지는 않았지.
해설	㉢는 '호 생원'이라며 예의를 갖춰 자신을 불러 주는 '자라'의 태도에 대해 보인 반응이 맞습니다. 하지만 ㉤는 그저 '호랑이'의 위엄 있는 모습에 놀란 것일 뿐, '호랑이'의 예의 바른 모습에 대해 보인 반응은 아니죠?

② ㉢와 ㉤는 동일한 주체가 상대의 당황하는 모습에 대해 보인 반응이다.

자라가 ㉢ 깜짝 놀래여 목을 움치고 가만히 었졌을 제

자라가 ㉤ 깜짝 놀래여 여보 당신이 뉘라 허시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호랑이는 처음에 당황한 적이 없지.
해설	㉢와 ㉤는 각각 '호랑이'의 위엄과 자신을 잡아 먹으려는 '호랑이'의 행동에 대해 보인 반응입니다. 이때까지는 '호랑이'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③ ㉢와 ㉤는 각기 다른 주체가 상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생긴 위기 상황에서 보인 반응이다.

자라가 ㉤ 깜짝 놀래여 여보 당신이 뉘라 허시오

호랑이 ㉠ 질색허여 아이고 별나리 이것 좀 놓아주시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해설	㉢는 '호랑이'가 자신을 잡아 먹으려고 한다는 위기 상황에서 '자라'가 보인 반응이고, ㉤는 '자라'가 자신의 쓸개를 빼려고 한다는 위기 상황에서 '호랑이'가 보인 반응입니다. 이 내용 그대로 선지화되어 있으니,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	---

④ ㉠과 ㉤는 동일한 주체가 자신의 숙원이 성취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보인 반응이다.

호랑이 ㉠ 반기 듣고 일시구나 좋을시고

호랑이 ㉢ 깜짝 놀래 예끼 이것 목 나온다 고만 나오시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는 진짜 놀란 건데?
해설	㉢는 '호랑이'가 왕배탕을 먹어보고자 하는 자신의 숙원이 성취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보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는 갑자기 '자라'의 목이 튀어 나온 것을 보고 정말로 놀라는 반응이었죠? ㉤는 선지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에 답이 될 수 없네요.

⑤ ㉢와 ㉤는 동일한 주체가 상대의 예상 밖 제안에 대해 보인 반응이다.

호랑이 ㉢ 깜짝 놀래 예끼 이것 목 나온다 고만 나오시오

호랑이 ㉠ 질색허여 아이고 별나리 이것 좀 놓아주시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언제 제안을 했냐.
해설	㉢는 '자라'의 목이 튀어 나온 것을 보고 놀라는 반응이고, ㉤는 '자라'가 자신의 쓸개를 빼려고 한다는 위기 상황에서 '호랑이'가 보인 반응입니다. 두 상황에서 모두 '자라'라는 상대의 제안이 나오지는 않았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	50%	26%	13%	3%

21.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설명을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②

- ① ‘사냥개’에 대한 토끼의 평가에서, 현실에서 사냥개가 사람에게 길들여진 것을 우화 속 상황에 중첩함으로써 강자의 환심을 사 이익을 얻는 인간에 대한 비판이 드러남을 알 수 있군.

사냥개라 하는 것은 같은 우리 모족(毛族)으로 사람 집에 기식하니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해설	단순히 ‘사냥개’에 대한 비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선생님의 설명’을 참고하면 이를 작품 속 ‘인간’과 같은 강자의 환심을 사 이익을 얻는 인간에 대한 비판이 드러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미리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선생님의 설명’을 근거로 하면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해석이네요.

- ② 자라가 ‘동의보감’을 떠올린 데서, 현실의 의서를 우화 속 상황에 중첩함으로써 명약을 탐하는 속내를 지식을 내세워 숨기는 위선적 인간에 대한 비판이 드러남을 알 수 있군.

별주부 듣고 기가 막혀 이 급살 맞아 죽을 놈이 동의보감을 얼마나 통달하였는지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호랑이는 명약을 탐하는 속내를 숨긴 적이 없는데?
해설	‘자라’가 ‘동의보감’을 떠올린 것은 자신을 무엇이라 소개하든 전부 명약이라고 생각하며 먹으려고만 하는 ‘호랑이’가 어이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호랑이’는 ‘명약을 탐하는 속내’를 숨긴 적이 없었기에, 이를 근거로 하면 명약을 탐하는 속내를 숨기려는 인간에 대한 비판이라는 이 선지의 해석은 허용하기 어렵겠네요. 결국 또 ‘호랑이’의 내면세계 및 그로 인해 ‘동의보감’을 떠올리게 된 ‘자라’의 내면세계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습니다.

- ③ ‘포수’에 대한 호랑이의 태도에서, 현실의 인간이 지닌 힘을 우화 속 인물들의 위계질서에 중첩함으로써 권력자가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 위신을 잃는 상황이 강조됨을 알 수 있군.

일등 포수가 따라다녀 어설피 몰라다가 조총에 불이 번듯 탄 환이 쑥 나오면 거 내 신세는 어쩔 것이냐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포수의 힘을 우화 속에 중첩해서 상황을 강조하고 있네.

해설	‘호랑이’는 ‘포수’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선생님의 설명’과 엮어서 이해하면, 이는 동물들이 인물로 등장하는 우화 속 세상의 위계질서(‘호랑이’가 가장 높음)에 청중의 현실 속 요소 중 ‘포수’와 같은 인간이 지닌 힘을 중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실감을 부여하고, ‘호랑이’와 같은 권력자가 ‘포수’와 같은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 위신을 잃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역시 지문을 읽을 때는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보기> 역할을 하는 ‘선생님의 설명’과 엮으면 근거가 있으니 허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 ④ 호랑이가 ‘선영’을 언급한 데서, 현실의 윤리를 우화 속 인물인 내세운 구실에 중첩함으로써 자손의 도리를 말하며 곤란한 처지를 벗어나려는 인물의 절박한 상황이 강조됨을 알 수 있군.

만일 내가 죽게 되면 선영에 죄가 망극하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현실의 윤리를 우화 속에 중첩해서 상황을 강조하고 있네.
해설	3번 선지와 같은 논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가 ‘선영’을 언급한 것은 우화 속 인물이 내세운 구실에 청중의 현실 속 요소 중 ‘윤리’를 중첩하는 방식으로 현실감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곤란한 처지를 벗어나려는 인물의 절박한 상황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먼저 해대기는 어려운 해석이지만 ‘선생님의 설명’을 근거로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내용이죠. 3번 선지, 4번 선지처럼 <보기>를 근거로 활용하여 높은 수준의 해석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는 자주 출제됩니다. 너무 과한 ‘느낌’이라서 틀렸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기>를 근거로 최대한 ‘허용’하려고 해 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 ⑤ 호랑이가 ‘해남’에서 ‘압록강’까지 댔 데서, 현실의 지명을 우화 속 공간에 중첩함으로써 실체라면 단숨에 닿기 불가능한 거리를 이동하는 상황이 과장되게 표현된 것임을 알 수 있군.

전라도 해남에서 뱀다 댔 놈이 의주 압록강 가에서 숨을 내쉬고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네.
해설	미리 생각했던 내용이죠? 미리 생각하지 못했더라도, 이 정도는 ‘선생님의 설명’과 엮어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을 겁니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② 소설 독해 : ‘심리와 행동의 근거’를 바탕으로 인물에게 ‘공감’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물흐르듯 이어지면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문 내용 총정리

대부분의 학생들이 큰 틀의 내용을 알고 있는 ‘수궁가’이고, 인물들의 상황을 상상하고 공감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 판소리라는 형식에 당황하지만 않았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다만 <보기>를 적용하며 선지의 허용 가능성을 따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마지막 문제의 3~4번 선지에서 고생했을 가능성이 높았겠습니다. 해설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형태의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다시 세워보도록 합시다.

생각의 전개 <문문학 해결하기>

2026.11 [22~26] 현대시+수필 '그리움 / 감나무 그늘
아래 / 최립에게 주는 글' ☆☆☆

<보기> 확인

—<보 기>—

(가)와 (나)는 밝음과 어두움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양상이 서로 다르다. (가)는 연대를 상실한 암울한 현실 상황을 어두운 밤으로 표상하고, 빛이 회복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 이러한 소망은 소금을 뿌리며 그리운 이를 찾아다니는 행동으로 형상화된다. (나)는 자연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명암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성숙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다. 이러한 성찰은 자연물과 내면을 동일시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그려 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가)와 (나)의 주제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보기>입니다. 두 작품 모두 '밝음과 어두움의 이미지'를 활용하는데, 먼저 (가)는 '연대를 상실한 암울한 현실 상황'에서 '빛이 회복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화자의 상황과 내면세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네요.

(나)의 경우, 자연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명암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성숙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화자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들여다보며 '성숙'을 추구한다는 주제를 체크해 놓고, 이를 확인하며 지문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보 기>—

(다)는 마음에서 기가 움직여 뜻이 소리로 나오는 데 있어 도리에 합당해야 좋은 글이라는 글쓴이의 문학론을 바탕으로, 상대의 문장을 평가하며 칭찬과 당부를 전하고 있다.

(다)의 주제도 친절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기'가 움직여 뜻이 소리로 나오는 데 있어 '도리'에 합당해야 좋은 글이라는 것이 글쓴이의 문학론이네요. (다)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만 하겠죠?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실전적 지문 독해

(가)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다
빛나는 때를 위해 소금을 뿌리며
우리는 이 저녁을 떠돌고 있는가
사방을 둘러보아도
등불 하나 켜 든 이 보이지 않고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는다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가 있다
잊혀진 한 목소리 잊혀진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아
목메이게 부르짖다 잦아드는 때가 있다
잦아드는 외마디 소리를 찾아 칼날 세우고
우리는 이 새벽길 숨가쁘게 넘고 있는가
하늘 올려보아도
함께 어둠 지새던 별 하나 눈뜨지 않는다
그래도 두고 온 것들은 빛나는가
빛을 뿜으면서 한 번은 되살아나는가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우리가 뿌린 소금들 반짝반짝 별빛이 되어
오던 길 환히 비취 주고 있으니

- 이시영, 「그리움」 -

<보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둠'의 이미지로 표현된 암울한 현실 상황에서 '빛'의 이미지로 포함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주제 정도만 체크해놓고 자세한 독해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해보도록 합시다.

(나)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라.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라.
아까는 오색딱따구리가
따다다닥 찍고 가더니
봐 봐, 시방은 청설모가
쭈르르 타고 내려오네.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 갈 땡감들.
때론 머리 위로 흰 구름 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 맞아 보게.
이별까지 나눈 마당에
기다림은 웬 것이라만,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그래 그래, 밤이면 잠 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 보고
새벽이면 퍼뜩 깨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 보게.
그 기다림 날로 익으니
서러움까지 익어선
저 질푸른 감들, 마침내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세상은 어찌 환하지 않으랴.
하늘은 어찌 부시지 않으랴.

- 고재중, 「감나무 그늘 아래」 -

'감나무'라는 자연물 속에서 익어가는 감을 보며 '성숙'이라는 주제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역시 <보기>에서 말한 그대로죠? 마지막에는 (가)와 비슷하게 세상이 밝게 빛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네요. 역시 자세한 건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다)

천지간에 만물이 소리를 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초목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소리가 나지 않으나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난다. 그런즉 초목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바람이다. 금석은 때리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소리가 나지 않으나 물건이 때리면 소리가 난다. 그런즉 금석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물건이다. 무릇 크고 작은 만물이 소리를 내는 것은 또한 반드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으로는 오장이 있고 밖으로는 형체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어찌 소리를 내겠는가. 기(氣)가 안에 쌓이고 밖으로 드러난 뒤라야 소리가 나

는 것이다. 그런즉 사람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기이다.

만물이 소리를 내게 하는 요소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초목’, ‘금석’과 같은 예를 들면서, 결국 ‘사람’의 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문학 작품은 인간의 이야기라는 걸 생각하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어쨌든, 글쓴이가 보기에 사람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기’라고 합니다.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기’에 주목하여 자신의 문학론을 펼치려는 모습이지요?

소리는 한 가지가 아니니, 쓸모없는 소리가 있고 쓸모 있는 소리가 있다. 재채기 소리와 코 고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가운데 쓸모없는 것이고, 탄식하고 담소하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가운데 쓸모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리’를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하나 정보로 처리하기보다는, 최대한 당연한 말로 납득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해요. 결국 어떤 사람의 ‘주장’일 뿐이니, 글을 읽다보면 나름대로 납득이 될 것입니다. 재채기 소리, 코 고는 소리처럼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 소리는 쓸모없는 소리이고, 탄식하거나 담소하는 것처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소리는 쓸모 있는 소리라고 해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과 같은 요소를 떠올리면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쓸모 있는 소리에는 아름다운 소리와 추한 소리가 있다.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좋아하면 아름다운 소리이고, 미워하면 추한 소리이다. 아름다운 소리에는 실상이 있는 소리가 있고 흠여지는 소리가 있다.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지 못하면 흠여지는 소리가 되고,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면 실상이 있는 소리가 된다. 실상이 있는 소리에는 바른 것이 있고 샛된 것이 있다. 또 바른 것 같으면서 샛된 것도 있고, 혹 샛된 것 같으면서 바른 것도 있다. 사람의 소리로서 남에게 듣기 좋고, 남에게 듣기 좋아 글로 쓰이고, 글로 쓰였으면서 바름에 합당하다면 그것을 일컬어 좋은 소리라 한다.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이번엔 ‘쓸모 있는 소리’를 ‘아름다운 소리’와 ‘추한 소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소리’는 또 ‘실상이 있는 소리’와 ‘흠여지는 소리’로 나누고 있구요. 역시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글로 쓰일 정도라면 ‘실상이 있는 소리’가 되겠지만, 글로 쓰이지 못하면 그렇지 않은 소리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실상이 있는 소리’에는 ‘바른 것’이 있고 ‘샛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글쓴이는 ‘쓸모 있는 소리’ 중 ‘아름다운 소리’, 또 그 중에서도 ‘실상이 있는 소리’이면서 ‘바른 소리’인 경우를 ‘좋은 소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기’가 움직여 뜻이 소리로 나오는 데 있어 ‘도리’에 합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하나하나 정보로 처리하면 복잡해지지만, 그냥 납득해버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최립은 좋은 소리를 내는 사람에 가깝다. 그의 문장이 비록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뜻은 바름을 향한다. 그러니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바르게 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내가 들으니 소리를 내는 만물은 그 본체가 크면 그 소리 또한 크고, 그 본체가 작으면 그 소리 또한 작다고 한다. 최립은 소리가 크니 그 본체가 큰 것을 알 만하다. 사람의 본체는 마음이니 그의 마음이 가히 크다고 하겠다. 내가 또 들으니 크게 부딪치면 큰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소리가 나며, 작게 부딪치면 작은 소리가 난다고 한다. 큰 바람이 초목을 움직이면 천지를 뒤흔들 듯하나, 작은 바람이 불면 한 번 살랑거림에 불과할 뿐이다. 금석을 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사람의 소리는 기가 크면 그 소리가 크게 나고 기가 작으면 그 소리가 작게 나니, 최립의 기는 가히 크다고 하겠다.

- 이이, 「최립에게 주는 글」 -

마지막 문단에서 글쓴이는 ‘최립’이 이러한 ‘좋은 소리’를 내는 사람에 가깝다며, 조금만 공부를 더 하면 뜻을 바르게 펴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밑줄 친 부분들을 보며 글쓴이가 ‘최립’을 아주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보기>의 내용이 잘 녹아 있는 작품이었기에 어렵지 않게 독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28%	6%	9%	55%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① (가)는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무슨 계절인지 모르겠는데?
해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에서 언급한 것처럼,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가 있는 경우 대부분 그 작품 속 상황이 어느 계절인지 확연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죠? 사실 꽤 거시적인 내용이라 답일 가능성이 높은 선지이지만, (가)에는 정말로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가 없어서 허용하기 어렵네요.

② (나)는 자연을 관조하며 시적 상황을 탈속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무슨 관조야.
해설	(나)의 화자는 ‘감나무’라는 자연을 자신의 내면세계를 잔뜩 투영하며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세계를 거쳐 외부세계의 대상을 인식하고 있으니 ‘관조’는 절대 허용할 수 없겠죠? 나아가 화자가 ‘탈속적 태도’를 보이는 것도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화자는 그저 ‘성숙’을 지향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③ (다)는 글쓴이와 타인의 생각을 비교하며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런 내용 아닌데.
해설	(다)의 주제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선지네요. (다)의 글쓴이는 타인과 생각을 비교하지도 않았고, 세태를 비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좋은 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소개하고 이를 '최립'이라는 인물에게 적용하며 칭찬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④ (가)와 (다)는 모두, 연쇄적 표현을 통해 주체의 태도 변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연쇄적 표현 찾기 귀찮은데... 태도 변화는 없었지.
해설	(다)에서 '소리'를 구분하며 제시하는 부분은 충분히 '연쇄적 표현'이라고 할 만합니다. 하지만 (가)에서는 이런 표현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긴박한 시험장에서 '연쇄적 표현'처럼 미시적인 표현을 찾는 것은 쉽지 않으니, '주체의 태도 변화'는 없었다는 것을 바탕으로 지우는 게 맞겠습니다. 인물의 내면 세계가 변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나타나기 어렵다고 했어요.

⑤ (나)와 (다)는 모두, 가정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제 보니 가정적 표현 많네.
해설	일단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맞는 말이니, '가정적 표현'만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나)에서는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면',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등에서 찾아볼 수 있죠? 이를 통해 '그리움'과 '등불'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구요. (다)에서는 정말 많은 '가정적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애초에 첫 문단에서부터 '움직이지 않으면'과 같은 표현을 찾을 수 있죠? '가정적 표현'은 나름대로 찾기 쉬운 표현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서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FAQ

Q : 4번 선지의 '연쇄적 표현'은 미시적이라서 찾기 어렵다 하시고, 5번 선지의 '가정적 표현'은 나름대로 찾기 쉬운 표현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나요?

A : 기본적으로는 많은 문제풀이 경험을 통해 체득하는 '감'의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영역입니다. 하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연쇄적 표현'은 '형식'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요. (다)의 '연쇄적 표현'처럼 정말로 말들이 반복되면서 이어나가는 식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그 '내용'까지 살펴봐야 하죠. 반대로 '가정적 표현'은 그냥 '~면'이라는 '형식'만 찾으면 됩니다. 그냥 각 행이나 문장의 끝부분만 빠르게 살피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찾기 쉽고 표현한 것이죠.

전자의 예시로 '역설적 표현', '공감각적 표현' 같은 것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시로 '명사로 시행을 끝맺음', '의문의 형식' 같은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문학 기출분석을 많이 하면서 이런 '감'도 끌어올리도록 합시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2%	8%	15%	15%	10%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① (가)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은, '밤을 지키는' 이의 눈을 피해 다니며 그리운 존재를 찾고 있는 암울한 현실 상황을 보여 주는군.

사방을 둘러보아도
등불 하나 켜 든 이 보이지 않고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는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오히려 밤을 지키는 소리를 찾고 있는 건데?
해설	'밤을 지키는'이라는 단어만 보면 왠지 그럴듯한 선지입니다. 그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늘 근처 맥락까지 살피면서 '독해'하라고 했어요. 독해를 해 보니, 화자는 '사방을 둘러보'며 '밤을 지키는 / 발자국 소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러보아도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소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독해의 결과를 근거로 하면, '밤을 지키는' 이의 눈을 피해 다닌다는 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 ② (가)에서 ‘오던 길’을 ‘소금들’이 ‘환히 비취 주’는 것은, ‘두고 온 것들’이 되살아날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는 점에서 빛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실현될 수 있음을 암시하겠군.

그래도 두고 온 것들은 빛나는가
빛을 뿜으면서 한 번은 되살아나는가
우리가 뿌린 소금들 반짝반짝 별빛이 되어
오던 길 환히 비취 주고 있으니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 그 자체네.
해설	화자는 ‘두고 온 것들’이 빛나면서 되살아날 미래를 소망하며, 그동안 뿌렸던 ‘소금들’이 별빛이 되어 ‘오던 길’을 ‘환히 비취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이야기했던 ‘빛이 회복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잘 보여 주는 대목이네요.

- ③ (나)에서 ‘반짝’이는 ‘잎새’와 ‘그늘’을 함께 지닌 ‘감나무’ 아래에 ‘평상을 놓’는 것은, 밝음과 어두움이 어우러져 있는 자연에서 내면에 대한 성찰을 이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군.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라.

(중략)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그래 그래, 밤이면 잠 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 보고
새벽이면 퍼뜩 깨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 보게.
그 기다림 날로 익으니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네.
해설	이번에도 주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선지화한 모습입니다. 화자는 ‘반짝’이는 밝음의 이미지와 ‘그늘’이라는 어두움의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감나무’라는 자연 속에서 ‘성숙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감나무’ 아래에서 자연물과 내면을 동일시하여 (성숙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자신의 내면세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 ④ (가)에서 ‘별 하나 눈뜨지 않’는 밤은 함께하던 이가 보이지 않는 상실의 상황을, (나)에서 ‘잠 뒤척’이는 ‘밤’은 마음이 감처럼 ‘익어’ 가는 데 필요한 성숙의 시간을 의미하겠군.

하늘 올려보아도
함께 어둠 지새던 별 하나 눈뜨지 않는다

그래 그래, 밤이면 잠 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 보고
새벽이면 퍼뜩 깨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 보게.
그 기다림 날로 익으니
서러움까지 익어선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함께 하던 게 눈을 뜨지 않으면 상실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성숙하려면 많은 밤을 보내야지.
해설	(가)의 화자는 ‘함께 어둠 지새던’ 별이 눈을 뜨지 않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보기>에서 제시한 화자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함께하던 이가 보이지 않는 상실의 상황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한편, (나)의 화자는 ‘잠 뒤척’이는 ‘밤’을 지내며 ‘기다림’과 ‘서러움’이 ‘익어’ 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역시 <보기>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기다림’과 ‘서러움’이 ‘익어’ 가는 것은 ‘성숙’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기>에서 제시한 주제 중심으로 생각하면 선지를 판단하기가 이렇게 쉬워집니다.

- ⑤ (가)에서 ‘빛나는 때를 위해’ ‘저녁’부터 ‘새벽’까지 길을 걷는 행동과, (나)에서 ‘길푸른 감들’이 ‘등불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은 모두, 밝음이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다
빛나는 때를 위해 소금을 뿌리며
우리는 이 저녁을 떠돌고 있는가

(중략)

찾아드는 외마디 소리를 찾아 칼날 세우고
우리는 이 새벽길 숨가쁘게 넘고 있는가

저 길푸른 감들, 마침내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세상은 어찌 환하지 않으랴.
하늘은 어찌 부치지 않으랴.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둘 다 밝음을 좇고 있네.
해설	‘빛나는 때를 위해’ 길을 걷는 것과 ‘길푸른 감들’이 ‘등불을 밝힐 것’을 기다리는 것은 모두 ‘밝음’을 좇는 화자의 내면세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20%	14%	57%	6%

2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 ① ㉠이 '목메이게 부르짖'는 것과 ㉡을 찾고자 '숨가쁘게' 길을
넘는 것에는 모두, 대상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드러난다.

잊혀진 ㉠ 한 목소리 잊혀진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아
목메이게 부르짖다 잦아드는 때가 있다
잦아드는 ㉡ 외마디 소리를 찾아 칼날 세우고
우리는 이 새벽길 숨가쁘게 넘고 있는가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간절함 그 자체지.
해설	㉠이 '목메이게 부르짖'고, ㉡을 찾고자 '숨가쁘게' 길을 넘는 모습은 모두 '간절한 마음'을 허용할 근 거로 보기에 충분하겠습니다. '목메다'와 '숨가쁘다' 라는 단어의 뜻만 생각해도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어요.

- ② ㉢ 중에는 쓸모는 있지만 남들이 듣고 미워하는 소리가 있는
한편, ㉢은 아니지만 남들이 듣고 좋아하는 소리도 있다.

또 바른 것 같으면서 싹된 것도 있고, 혹 싹된 것 같으면서
바른 것도 있다. ㉢ 사람의 소리로서 남에게 듣기 좋고, 남에게
듣기 좋아 글로 쓰이고, 글로 쓰였으면서 바름에 합당하다면 그
것을 일컬어 ㉢ 좋은 소리라 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 중에는 쓸모는 있지만 남들이 듣고 미워하는 소 리, 즉 '추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한편 ㉢은 아니지 만 남들이 듣고 좋아하는 소리, 즉 '아름다운 소리' 도 있었죠. 다양하게 제시된 여러 소리를 납득하면 서 읽었다면 이걸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 ③ ㉠이 잦아드는 것은 '다른 목소리의 끝'에 닿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이 흠여지는 것은 아름다운 소리가 글로써 실현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잊혀진 ㉠ 한 목소리 잊혀진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아
목메이게 부르짖다 잦아드는 때가 있다

㉢ 사람의 소리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은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다가 잦아드는 소리입 니다. 무언가를 찾다가 잦아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면, 이는 '다른 목소리의 끝'에 닿지 못해 포기하 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 중에는 '아름다운 소리'가 있는데, 이것이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지 못하면 '흠여지는 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역시 (다)에서 제시한 '소리의 구 분'을 잘 납득했다면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는 선지였네요.
----	--

- ④ ㉠은 '잊혀진' 상태이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화자가 생각
하는 대상이고, ㉢은 바른 것 같으면서도 싹된 것일 수 있다고
글쓴이가 생각하는 대상이다.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가 있다
잊혀진 ㉠ 한 목소리 잊혀진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아
목메이게 부르짖다 잦아드는 때가 있다

실상이 있는 소리에는 바른 것이 있고 싹된 것이 있다. 또
바른 것 같으면서 싹된 것도 있고, 혹 싹된 것 같으면서 바른
것도 있다. 사람의 소리로서 남에게 듣기 좋고, 남에게 듣기 좋
아 글로 쓰이고, 글로 쓰였으면서 바름에 합당하다면 그것을 일
컬어 ㉢ 좋은 소리라 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좋은 소리는 그냥 완벽 그 자체인 소린데?
해설	(가)의 화자는 '잊혀진' ㉠이 다시 살아나 '다른 목 소리의 끝'을 찾아 목메이게 부르짖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 그대로 선지화되어 있으니 당 연하게 허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은 '쓸모 있는 소리' 중 '아름다운 소리', 또 그 중에서도 '실상이 있는 소리'이면서 '바른 소 리'인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 까다로운 것이 었습니다. 선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른 것 같으면 서도 싹된 것일 수 있'다면 '좋은 소리'라고 할 수 없 을 거예요. (다)의 글쓴이가 ㉢의 기준을 아주 높게 세우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체크했다면 어렵지 않 게 답으로 골라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 ⑤ ㉡을 찾기 위해 화자는 미세한 소리에도 '칼날'을 '세우'듯이
민감하게 반응하려 하고, ㉢ 중에서 담소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탄식하는 소리도 글쓴이는 쓸모 있다고 여기고 있다.

잦아드는 ㉡ 외마디 소리를 찾아 칼날 세우고
우리는 이 새벽길 숨가쁘게 넘고 있는가

㉢ 사람의 소리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가)의 화자는 ㉠을 찾기 위해 ‘칼날’을 세울 정도로 민감한 상태에서 ‘새벽길’을 ‘숨가쁘게’ 넘고 있습니다. 이런 독해의 결과 그대로 선지화되었으니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죠. 또, (다)의 글쓴이는 ㉡ 중에서 ‘쓸모 있는 소리’에는 ‘탄식하고 담소하는 소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의미가 있는 소리’ 정도로 정리해서 납득해 놓은 상태였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6%	17%	68%	6%

25. ㉠~㉡를 중심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 ① 화자는 ㉠가 흔드는 것이 감나무 잎새뿐이라고 여기다가 ㉡를 보며 그 생각을 바로잡고 있다.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라.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라.
아까는 ㉡오색딱다구리가
따다다닥 짹고 가더니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뭔 생각을 바로잡아.
해설	(나)의 화자는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뿐일 리가 없으며, ‘햇살’ 및 ㉠와 같은 대상들도 ‘감나무’에게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나무 잎새’에 영향을 주는 대상이 많다는 생각을 반복하며 ‘심화’하고 있지, 생각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아요.

- ② 화자는 ㉡가 내는 소리와 ㉢의 움직임을 통해 감나무 열매가 충분히 익은 상태임을 짐작하고 있다.

아까는 ㉡오색딱다구리가
따다다닥 짹고 가더니
봐 봐, 시방은 ㉢청설모가
쭈르르 타고 내려오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아직 안 익었는데?
해설	일단 ㉠와 ㉡가 나오는 부분만 보고서는 화자가 ‘감

	나무 열매’가 익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 문제들을 푸는 과정에서 ‘감나무 열매’가 익는 것, 즉 ‘성숙’하는 것은 후반부임을 알고 있죠? ㉠와 ㉡가 등장하는 초반부는 아직 ‘성숙’이 이루어지기 전이었습니다.
--	--

- ③ 화자는 ㉡와 ㉢가 감나무에서 만났다가 한순간에 헤어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사랑이 끝났음을 떠올리고 있다.

아까는 ㉡오색딱다구리가
따다다닥 짹고 가더니
봐 봐, 시방은 ㉢청설모가
쭈르르 타고 내려오네.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한순간에 헤어진 게 아니잖아.
해설	㉠는 ‘감나무’를 ‘아까’ 짹고 갔고, ㉢는 ‘시방’(지금) ‘감나무’를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와 ㉡가 ‘한순간에 헤어지는’ 것 자체가 틀린 말이기에 일단 허용할 수 없는 선지네요. 한편, 이것을 ‘보며’ 자신의 사랑이 끝났음을 떠올리고 있다는 건 좀 애매합니다. 화자가 사랑이 끝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와 ㉢를 보면서 이를 떠올렸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와 ㉡가 ‘떠나는 것’을 보고서 자신의 사랑이 ‘떠난 것’을 떠올렸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틀린 선지로 만들어 주기 위해 앞쪽을 틀리게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수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틀린 선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여러모로 아쉬운 선지이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주제’와 큰 관련이 없으니 답이 되긴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선지로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 ④ 화자는 감나무 열매가 자라는 과정에서 ㉠를 만나기도 하고 ㉡를 만나기도 하는 일이 유의미하다고 여기고 있다.

때론 머리 위로 ㉠흰 구름 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 맞아 보게.
이별까지 나눈 마당에
기다림은 웬 것이라만,

(종락)

그 기다림 날로 익으니
서러움까지 익어선
저 질푸른 감들, 마침내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다 보면 감이 익어가겠지.
해설	화자는 '감나무 열매'가 ㉠과 ㉡를 만나면서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기다림'과 '서러움'이 익는 것처럼 '성숙'도 익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를 고려하면, ㉠과 ㉡를 거치다 보면 '성숙'이라는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화자가 중요시하는 가치(성숙)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면, 화자가 ㉠과 ㉡를 만나는 일을 유의미하다고 여긴다는 해석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또 '주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묻는 선지였습니다.

- ⑤ 화자는 ㉠과 ㉡가 감나무를 떠난 후에 ㉠과 ㉡가 오는 것을 보며 머지않아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까는 ㉠ 오색딱다구리가
따다다닥 찍고 가더니
봐 봐, 시방은 ㉡ 청설모가
쭈르르 타고 내려오네.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라,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 갈 땀방울.
때론 머리 위로 ㉠ 흰 구름 이고
때론 온종일 ㉡ 장대비 맞아 보게.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사랑은 이미 끝났는데?
해설	3번 선지와 4번 선지를 판단한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허용할 수 있는 선지입니다. 3번 선지를 판단하면서 화자가 사랑이 끝났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4번 선지를 판단하면서 ㉠과 ㉡는 '성숙'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것을 독해했으니까요. 즉, 화자는 이미 사랑이 끝났음을 인식하고 '기다림'과 '서러움'의 '성숙'을 맞이하려고 할 뿐,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독해할 수 있겠지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58%	14%	17%	6%

26.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 ① '만물'이 소리 나는 이치에서 시작하여 '사람'이 소리를 내는 이치를 밝히며, 소리를 화두로 삼아 문장에 대해 말하고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지문 내용을 요약한 것과 다름이 없는 선지죠? (다)는 '소리'에서 시작하여 '문장'에 대해 말하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 ② '소리'가 지닌 상반된 특성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좋은 소리'임을 제시하여, 문장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바를 드러내고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균형 저런 게 아니라 그냥 완벽한 게 좋은 소리지.
해설	(다)의 글쓴이는 '쓸모 있는 소리' 중 '아름다운 소리', 또 그 중에서도 '실상이 있는 소리'이면서 '바른 소리'인 경우를 '좋은 소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갖춰야 '좋은 소리'가 되는 것이지, '소리'가 지닌 상반된 특성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역시나 주제를 잘못 파악한 선지가 정답으로 제시된 모습입니다.

- ③ 최립의 문장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에 가까움을 언급하며, 그의 문장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최립을 칭찬했지.
해설	'최립'의 문장이 '참으로 어려운 일'에 해당하는 '좋은 소리'에 가까움을 언급하면서 그의 문장을 칭찬하는 것이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 ④ 최립의 문장에 담긴 '뜻'이 도리에 합당함을 향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그가 학업에 정진할 것을 당부하고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공부하라고 했지.
해설	(다)의 글쓴이는 '최립'이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바르게 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당부를 합니다.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최립'의 문장을 평가하며 칭찬과 '당부'를 드러내는 모습이었죠? 이런 선지에 당하지 않으려면 지문 내용을 어느 정도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수필의 경우에는 독서 지문을 읽듯이 꼼꼼하게 읽자는 태도를 항상 강조드렸어요!

- ⑤ 글로 드러난 최립의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이 그의 ‘마음’과 ‘기’에서 비롯됨을 언급하여, 그의 문장이 뜻을 크게 드러내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최립’을 칭찬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칭찬의 내용 역시 (다)의 주제 그 자체이니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시 독해 연습

(가)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다
빛나는 때를 위해 소금을 뿌리며
우리는 이 저녁을 떠돌고 있는가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뭘 두고 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화자는 그 ‘빛나는 때’를 위해 소금을 뿌리며 ‘이 저녁’을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이렇게 떠도는 게 화자 혼자만 아니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바로 화자가 기다리는 때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읽어봅시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등불 하나 켜 든 이 보이지 않고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함께 떠돌고 있는 ‘이 저녁’, 사방을 둘러보아도 등불 하나 켜 든 이 보이지 않습니다. 등불을 켜 사람 없으니, 그 뒤에서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도 하나 들리지 않겠죠. ‘이 저녁’은 어둡고 고요한 시간이네요.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가 있다
잊혀진 한 목소리 잊혀진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아
목메이게 부르짖다 잦아드는 때가 있다
잦아드는 외마디 소리를 찾아 칼날 세우고
우리는 이 새벽길 숨가쁘게 넘고 있는가

그때,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조용한 가운데 ‘잊혀진 목소리’는 ‘잊혀진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아 목메이게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이 저녁’에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고, 이에 잦아 들고 있어요. 화자를 비롯한 ‘우리’는 이렇게 잦아드는 ‘외마디 소리’를 찾아 ‘새벽길’을 숨가쁘게 넘고 있습니다. ‘저녁’에서 ‘새벽’으로 시간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화자가 기다리는 ‘빛나는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늘 올려보아도
함께 어둡 지새던 별 하나 눈뜨지 않는다
그래도 두고 온 것들은 빛나는가
빛을 뿜으면서 한 번은 되살아나는가
우리가 뿌린 소금들 반짝반짝 별빛이 되어
오던 길 환히 비춰 주고 있으니

- 이시영, 「그리움」 -

하늘을 올려보아도 여전히 ‘함께 어둡 지새던 별 하나’도 눈뜨지 않는 어둡고 고요한 새벽입니다. 하지만 화자는 ‘두고 온 것들’, 즉 ‘소금들’이 빛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금들’이 별빛처럼 빛나는 때가 오면, 어둡기만 하던 이 길을 밝게 비춰 줄 것입니다. 화자는 이렇게 ‘두고 온 것들’, 우리가 무심코 잊고 지내던 것들이 ‘빛나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라.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라.
아까는 오색딱다구리가
따다다닥 찢고 가더니
봐 봐, 시방은 청설모가
쫓르르 타고 내려오네.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화자입니다. ‘감나무’의 잎새를 건드리는 건 ‘바람’, ‘햇살’, ‘오색딱다구리’, ‘청설모’ 등 여러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시는 결국 인간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화자는 ‘감나무’로부터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감나무’를 흔들리고 반짝이게 하는 여러 요소가 있듯이 인간도 그러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이를 통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 갈 땡감들.

앞에서 했던 생각을 바탕으로 ‘사랑’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뜬금 없이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감나무’가 흔들리고 빛나는 걸 ‘사랑’이 끝나가는 과정으로 비유한 것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화자는 ‘사랑’이 끝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움’마저 사라지겠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움’이라는 화자의 내면세계가 드러나는 데, 이 ‘그리움’은 ‘감’이 커가는 것처럼 날로 자라고 있습니다.

때론 머리 위로 흰 구름 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 맞아 보게.
이별까지 나눈 마당에
기다림은 웬 것이라만,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그래 그래, 밤이면 잠 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 보고
새벽이면 퍼뜩 깨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 보게.

이런 상황에서, 화자는 때로 머리 위에 ‘흰 구름’을 이고 온종일 ‘장대비’를 맞아 보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별까지 나눈 마당에 ‘기다림’은 웬 것이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구름’과 ‘장대비’를 만나면서 다시 기다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이런저런 소리도 들어 보며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맥락상 떠난 사랑의 상대를 기다린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감나무’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며 기다리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상상해주시면 훌륭합니다.

그 기다림 날로 익으니
서러움까지 익어선
저 질푸른 감들, 마침내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세상은 어찌 환하지 않으랴.
하늘은 어찌 부치지 않으랴.

- 고재중, 「감나무 그늘 아래」 -

화자는 자신의 ‘기다림’이 날로 익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러움’까지 익어 간다는 것이죠. 단순히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림’과 ‘서러움’이 익을 때까지 성숙의 시간을 보내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면, 화자 위에 있는 ‘감나무’에는 ‘감들’이 질푸르게 익어 갈 것입니다. 그 ‘감들’이 마치 ‘형형 등불’처럼 밝게 빛나는 때가 오면, 세상은 환할 것이고 하늘은 부실 것이라는 화자의 생각을 전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결국 화자는 ‘이별’에 좌절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성숙’의 시간을 보내고, 이게 결국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 ② 현대시 독해 : <보기>의 도움 등을 통해 ‘주제’ 위주로, 그리고 일상 언어의 감각으로 읽어내면 됩니다. 현대시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글입니다.
- ③ 수필 독해 : 운문문학과 마찬가지로, 글쓰기가 하고자 하는 말인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필이 어렵게 출제될 것을 대비해, 독서 지문을 읽듯이 꼼꼼하게 읽으며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지문 내용 총정리

<보기>에서 주제를 굉장히 친절하게 제시했고, 선지에서 요구한 독해의 수준도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특히 문제들이 대부분 ‘주제’라는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해요. 결국 평가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생각 워크북 <산문문학 해결하기>

2026.11 [27~30] 현대소설 '독가촌 풍경' ☆☆

<보기> 확인

—<보 기>—

윗글에서 서술자는 부정적 인물인 허명두에게 초점화하여 그의 내면을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허명두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일반화하거나, 주어진 상황을 주관화하거나, 상대의 생각을 헤아리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인물의 생각을 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어, 서술의 이면에 그 부정성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이 함께 있음을 보여 준다.

최근 자주 등장하는 '특정 인물에게 초점화' 개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허명두'라는 부정적 인물의 내면세계를 중심으로 서술될 것이지만, 서술자는 '허명두'가 가지고 있는 부정성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지문 독해

"8·15 이후의 비극은…… 주민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되는 가운데에 그 마을과 동네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는 바로 그 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앞으로도 그럴까요? 적어도 이 독가촌에서만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두 종류의 인간군들이 사는가 보았다.

"역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니, 나는 무식하고 먹고살기에 바빠서, 도무지 그런 얘기라는 것이…… 글썄요."

허명두 씨는 하품을 하였다.

'8·15 이후'의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국민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되는 가운데에 역사가 흘러왔으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가촌'에서는 앞으로 그럴 일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주민들의 삶을 신경써주는 마을을 만들고 싶은가 보네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허명두 씨'는 하품을 하면서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술자의 표현처럼,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두 종류의 인간군들처럼 보이네요. 한 명은 진지하게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한 명은 하품을 하면서 탄청을 피우고 있으니까요.

"실례지만 선생께서는 8·15 직후에 무슨 청년당 일에……?"

온 씨의 어조가 진지한 것이 아니었다면 허명두 씨는 욕설을 퍼부어 네가 무슨 사찰 요원이나고 따질 뻔하였다. 하지만 허명두 씨는 오랜만에 증오가 되살아나서 온 씨를 냉담하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8·15 직후라? 그때 참 별의별 못난 것들이 제 세상 만났다고 착각하며 날뛰었지요."

"역시 그러셨구만."

"왜? 나를 본 적이라도?"

"많이 보았지요. 지금도 많이 보고 있고, 이봐요. 허 선생. 더 이상 서툰 짓은 하지 마시오. 당신이 무슨 짓을 꾸미고

[A]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있는지 다들 알고 있소. 그런데 이제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날뛰던 시대는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 거요. 우리의 피땀으로 이룩한 독가촌을 가지고 서툰 짓을 벌이려고 하다가는 당신이 온전치는 못할 거요."

"나한테 협박을 하는 것이라면…… 그런 협박은 하나도 무섭지 않으니 어디 한번 해볼 대로 해보라지."

허명두 씨는 증오를 억누르며 말했는데 온 씨도 거연히 일어났다.

"내가 한 말 명심하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날뛰던 시대는 서서히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온 씨'는 갑자기 '허명두 씨'에게 무슨 청년당 일에 가담했냐고 묻습니다. 뜬금없이 정치 성향을 물어보고 있으니, '허명두 씨'가 욕설을 할 뻔했다는 것에는 어렵지 않게 공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오랜만에 '증오'가 되살아난 '허명두 씨'는 '온 씨'를 냉담하게 바라보며 비아냥거립니다. 과거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나 보네요.

이 말을 들은 '온 씨'는 '허명두 씨'가 역시 그 쪽일 줄 알았다고 경고를 날립니다. 이제 '허명두 씨' 같은 사람들이 날뛰던 시대는 지났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허명두 씨'는 '증오'를 억누르면서 자신은 무서울 것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온 씨'도 거연히(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마지막까지 경고를 날리는 것을 보니, '온 씨'는 '허명두 씨'와 같은 인물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것으로 보이네요.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그리고 나서 온 씨는 가 버렸는데, 독가촌 일대에는 금방 그 소문이 돌 대로 돌았다. 온 씨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야기를 퍼뜨렸기 때문이었다.

허명두 씨로서는 마지막 안간힘을 내어 그가 일으켜 보려는 이번 싸움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온 씨의 말이 단순한 협박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그렇기는 하지만 명분이나 사리의 옳음이란 것이 싸움에 무슨 필요가 있던 말인가.

그렇게 가버린 '온 씨'는 '허명두 씨'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도대체 '허명두 씨'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걸까요? 그 와중에 '허명두 씨는 '온 씨'가 준비하는 싸움이 어려울 것이고, '온 씨'의 말이 단순한 협박만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명분이나 사리의 옳음, 즉 '온 씨'가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싸움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물음을 던지는 '허명두 씨'입니다. '온 씨'를 이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굽힐 생각이 없는 모습이네요.

이러한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심심산골, 불모의 황무지였던 이곳 독가촌 일대가 하루아침에 각광을 받는 지대로 둔갑이 되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특히 독가촌은 오늘의 달라진 인문지리의 환경으로 따져 보았을 적에 고속도로와 접속이 되게 될 교통 요충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관광지로서의 좋은 조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드디어 자세한 사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없던 '독가촌'이 최근 고속도로와 접속이 되는 등 관광지로서 발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온 씨'와 같은 인물들은 이를 반대하고, '허명두 씨'와 같은 사람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인가 봅니다. 각자의 입

장이 이렇게 참여하게 대답하고 있으니, 앞에서 본 것처럼 적대적인 관계가 나타났던 것이죠. 사정을 알고 나니 훨씬 쉽게 공감할 수 있겠네요.

〔중략 부분 줄거리〕 허명두는 온 씨와의 **언쟁 전**에 있었던, 외부 기업 측으로부터 독가촌의 주택 매입을 요청받은 일을 회상한다.

‘허명두’는 ‘온 씨’와의 언쟁 전에 외부 기업 측으로부터 ‘독가촌’의 주택 매입을 요청받았던 모습입니다. 관광지로 개발되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생길 것이니 ‘허명두’를 통해서 미리 주택들을 사 두려고 했던 것이겠죠? ‘허명두’는 이때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행정 당국은 지목(地目) 변경은 해 두었지만 서류상으로는 그 모든 가옥들이 무허가 주택이나 다름없었으며, 따라서 집들의 매매는 권리금에 다름이 아니었다. 물론 불하를 내게 될 적에는 이미 지어진 집 임자에게 기득권을 부여하게 될 터이었다. 허명두 씨가 관청을 들락거리고 야금야금 집들을 사두게 된 것이 이 때문이었다.

사실 ‘독가촌’의 집들은 전부 무허가 주택이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소유권이 없는 상태이니 집들의 매매는 사실상 권리금만 내면 되는 수준으로 저렴했던 상황이에요. 여기서 불하(공공의 땅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것)를 하게 되면 이미 지어진 집(무허가 주택) 임자에게 기득권(우선권 정도겠죠.)을 부여하게 될 것이니, ‘허명두’는 지금부터 야금야금 집들을 사두는 모습입니다. 무허가 주택이라는 것은 지금 ‘독가촌’의 땅이 대부분 국가 소유라는 것이고, 관광지로 개발될 때 이 땅을 불하할 것인데 그때 이미 지어진 집의 임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뜻입니다. ‘온 씨’에게는 소중한 터전인 ‘독가촌’이 ‘허명두’ 입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투자 수단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이해하지 못해도, ‘허명두’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구나 정도의 느낌은 들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온 씨와 만나 언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지만, 온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전국 각처에서 찾아든 사람들이 이곳 독가촌에 정착하여 그러저럭 안정을 얻을 만하게 된 이즈음 이곳이 외부의 자본에 의해 관광지로 돼 버린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또 어느 곳으로 찾아들어 가 얼마만큼 방황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니 두메산골이었던 곳을 피땀 흘려 오늘의 독가촌으로 개척해 온 이곳 사람들이 이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틀린 말일 수는 없는 것이었다. 더구나 농촌 부락으로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터전도 굳혀 놓은 게 사실이었다. 온 씨의 주장은 옳은 것이었다. 허명두 씨의 입장에서조차 그것은 부정할 수 없었다. 피땀 흘려 가꾼 땅이 도시의 온갖 잡것들이 논다니를 치는 관광지로 되려는 것을 어찌 귀농 개척자들이 가만 보고만 있을 것인가. 하지만 그런 사리만을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이 현실인 것이고, 그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 놓고 있는 게 무엇이겠느냐를 따져 보면서 허명두 씨는 웃음을 짓는 것이었다. 대한청년단 시절의 일하며 화랑동지회의 체험들을 그가요 근래 부쩍 회상해 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해 오는 측이 항상 이겨 오고 있었던 게 아닌가. 온 씨가 찾아와서 자신에게 하였던 말을 그가 곰곰 생각해 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제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날뛰던 시대는 서서히 지나가고 있다’는 말을 그는 물론 실감으로 받아들이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는 있으며, 문제는 그것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지나간 게 아니라는 데 있었다.

- 박태순, 『독가촌 풍경』 -

이제 보니 ‘허명두’가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며 ‘독가촌’을 관광지로 변모시켜려 한다는 소문을 들은 ‘온 씨’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네요. 그런데 ‘허명두’는 ‘온 씨’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잡은 ‘독가촌’ 사람들 입장에서 땅이 불하되고 개발되어 다시 쫓겨나 방황을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이죠.

‘허명두’도 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다시금 그런 사리만을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냉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웃음을 짓는 것을 보면,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에 가득찬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청년단’ 시절의 일, ‘화랑동지회’에서의 체험 등을 회상하면서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해 오는 측이 이긴다는 자신의 생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온 씨’의 말처럼 자신과 같은 이들이 날뛰지 못하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허명두’의 생각을 전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허명두’의 입장에서 전개되지만 은근슬쩍 ‘허명두’의 부정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죠?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훌륭하게 읽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4%	5%	7%	82%

27.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㉓

- [A]는 ‘온 씨’와 ‘허명두’의 갈등이 참여하게 드러나던 구간입니다.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인물들에게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 가볍게 해결해보도록 합시다.

① 온 씨와 허명두는 서로에게 질문을 하며 상대의 반응을 살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온 씨’는 ‘허명두’에게 8·15 이후 무슨 청년당 일을 했냐고 물었고, ‘허명두’는 자신을 본 적이 있냐는 질문을 하면서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들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이었으니 충분히 기억할 수 있겠죠?

- ② 허명두는 온 씨의 발언에 불쾌해하며 과거에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떠올렸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증오가 되살아났지.
해설	8·15 이후 무슨 청년당 일을 했냐고 물어보는 ‘온 씨’의 발언에 ‘허명두’는 오랜만에 ‘증오’가 되살아 납니다. 이렇게 과거에 자신이 느꼈던 ‘증오’라는 감정을 다시금 떠올리는 ‘허명두’의 입장에 공감했던 기억이 있죠?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 ③ 온 씨는 허명두와 대화를 나누며 상대에 대한 자신의 짐작이 맞았다고 생각하였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역시 그러셨구만.
해설	‘온 씨’는 ‘허명두’가 비아냥거리자 “역시 그러셨구 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상대에 대한 자신의 짐 작이 맞았다는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말을 하 는 ‘온 씨’의 표정 등을 상상하며 읽었다면 당연히 하 게 허용할 수 있겠어요.

- ④ 온 씨는 상대의 행위를 평가하는 표현을 반복하며 허명두에게 꾸미고 있는 일을 그만두라고 경고하였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온 씨’는 ‘허명두’가 ‘무슨 짓’을 벌이며 날뛰는 행위 를 반복적으로 비하하면서, 꾸미고 있는 일을 그만 두라고 경고합니다. ‘허명두’는 이에 ‘증오’를 억누 르며 자신은 무섭지 않으니 알아서 하라는 반응을 보였죠? 이런 일련의 감정들에 공감했다면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 ⑤ 온 씨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자 허명두는 에둘러 말하여 상대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허명두는 피하지 않았지.
해설	‘온 씨’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자, ‘허명두’ 역시 공 격적인 태도로 나가면서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둘러 말하며 상대의 관심을 다른 곳 으로 돌리려고 한 것은 ‘온 씨’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 전 예의 있게 물어볼 때였죠. 지문의 흐름 에 맞춰 인물의 내면세계에 공감했다면 이런 생각 을 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11%	6%	6%	72%

28.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온 씨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야기를 퍼뜨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그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온 씨와 만나 언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지만,

- ㉠은 ‘온 씨’가 ‘허명두’의 진짜 모습을 알고서 뒷담화를 한 내용이고, ㉡는 ‘허명두’가 ‘독가촌’의 집들을 사 모으고 있다는 내용의 소문입니 다. ㉢를 듣고 찾아온 ‘온 씨’가 ‘허명두’와 대화한 뒤 ㉣를 퍼뜨린 흐름 이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 ① ㉠가 형성된 과정은 ㉡가 주변에 전해진 것과 무관하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 전해져서 온 씨가 허명두를 찾아간 건데?
해설	㉢를 전해들은 ‘온 씨’가 ‘허명두’를 찾아가고, 이에 ㉠가 만들어져 이를 ‘온 씨’가 퍼뜨린 것이었습니 다. ㉠과 ㉡는 정말 큰 관련이 있어요.

- ② ㉠가 처음 퍼진 시점은 ㉡가 처음 퍼진 시점보다 앞선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 먼저지.
해설	1번 선지와 같은 맥락에서 해결할 수 있죠? ㉢를 듣고 찾아온 ‘온 씨’가 ‘허명두’와 대화를 나눈 이후 에 ㉠를 퍼뜨린 거예요.

- ③ ㉠은 ㉡로 인한 인물 간의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갈등은 전혀 해결되지 않지.
해설	㉠은 오히려 ‘온 씨’와 ‘허명두’ 사이의 갈등을 증폭 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애초에 둘 사이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니 절대로 허용할 수 없겠죠?

- ④ ㉠가 주변에 빠르게 확산된 것은 ㉡가 거짓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는 진실인데?
해설	㉡는 진실이었습니다. 오히려 ‘독가촌’ 주민들에게 는 ㉠과 ㉡가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기에 ㉠가 빠르 게 확산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허명두’가 우리

	가 생각하던 그런 나쁜 사람이 맞았다.'라는 식으로 말이지.
--	-----------------------------------

- ⑤ ㉔에는 ㉔를 처음 퍼뜨린 인물이 ㉔와 관련하여 찾아가 만난 인물에게 확인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㉔와 ㉔를 보면서 미리 했던 생각 그 자체네요. ㉔에는 ㉔를 처음 퍼뜨린 인물인 '온 씨'가 ㉔와 관련하여 찾아가 만난 '허명두'로부터 확인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2%	25%	10%	8%	5%

29. '독가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독가촌'은 원래 아무도 관심없는 불모지였지만, 고속도로와 접속이 되면서 관광지로 발돋움하려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를 개발하려는 '허명두' 측과 농촌의 모습을 유지하려는 '온 씨' 측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났었죠?

- ① 고속도로가 연결될 것이 알려진 후 외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곳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래서 싸운 거지.
해설	바로 정답이네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허명두'와 같은 사람들이 나서게 된 것이고, '온 씨'와 같은 사람들의 갈등이 생긴 것이었죠.

- ② 허명두가 지목 변경으로 기득권을 부여받고서 집들을 사들이고 있는 곳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아직은 아니지.
해설	지목 변경은 되었지만 아직은 무허가 주택만 있던 곳이 '독가촌'이었습니다. '허명두'는 나중에 정부가 불하를 하게 되면 기득권을 부여받고자 지금 집을 사모으고 있던 것이었어요.

- ③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왔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곳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립할 터전을 마련했다니까.

해설	'허명두'의 말에 따르면, '독가촌'은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터전도 굳혀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독가촌' 주민들은 더욱 개발에 반대하는 것이었죠?
----	---

- ④ 온 씨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농업 중심의 기존 생활양식을 바꾸려 하는 곳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지금의 삶을 지키려는 것이지.
해설	'온 씨'는 농업 중심의 기존 생활양식을 지키려고 하고, '허명두'와 같은 사람들은 관광지로 바뀌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온 씨'의 성격을 이해했다면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선지죠?

- ⑤ 관광지로서의 좋은 조건을 갖추게 하려고 마을 사람들이 떠맡 홀려 노력한 곳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마을 사람들은 관광지 되는 거 싫어한다니까?
해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대로 해설할 수 있겠네요. 마을 사람들은 관광지로서의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된 현재의 상황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9%	71%	10%	6%

30. <보기>를 참고하여 ㉔~㉔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③

- ① ㉔: 인물과 상대를 '두 종류의 인간군'으로 일반화함으로써 상대와의 인식 차이가 좁힐 수 없는 것임을 드러내어, 상대와 소통이 어렵다는 인물의 생각이 타당한 것처럼 서술하였다.

㉔이 세상에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두 종류의 인간군들이 사느라 보았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인물의 상대를 '두 종류의 인간군'으로 일반화했고, 이를 통해 '온 씨'와 소통이 어렵다는 '허명두'의 생각이 타당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보기>의 내용을 입히면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 ② ㉠: 마을의 상황을 '싸움'으로 주관화함으로써 상대가 추구하는 '사리의 옳음'이 싸움에서 이기는 데에 유용하지 않음을 드러내어, 인물의 생각이 타당한 것처럼 서술하였다.

㉠ 그러나 그렇기는 하지만 명분이나 사리의 옳음이란 것이 싸움에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고 있네.
해설	선지 그 자체로 허용할 수 있겠죠? '온 씨'가 추구하는 '명분이나 사리의 옳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주관적으로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현 상황에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 '허명두'의 생각입니다.

- ③ ㉡: 상황 변화가 '안정'을 위협한다는 상대의 생각을 헤아림으로써 변화의 부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무엇이 변화의 원인인지는 달리 보아, 인물의 왜곡된 시선이 드러나도록 서술하였다.

㉡ 전국 각처에서 찾아든 사람들이 이곳 독가촌에 정착하여 그럭저럭 안정을 얻을 만하게 된 이즈음 이곳이 외부의 자본에 의해 관광지로 돼 버린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또 어느 곳으로 찾아들어 가 얼마만큼 방황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변화의 원인을 달리 본 게 아니지.
해설	㉡은 '허명두'가 상황 변화가 '안정'을 위협한다는 '온 씨'의 생각을 헤아림으로써 변화의 부정성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변화의 원인을 달리 본 것은 아니죠? '온 씨'도 '허명두'도 모두 '독가촌'이 관광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을 변화의 원인으로 볼 것입니다. 나아가, ㉡은 철저히 '허명두'가 '온 씨'의 마음을 헤아리는 부분입니다. 이를 '인물의 왜곡된 시선'이라는 표현을 쓰며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죠?

- ④ ㉢: '실리'를 추구한 측이 언제나 우위를 차지했다며 과거의 경험을 일반화함으로써 현재 상황에서도 실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합리화하여, 인물의 생각이 타당한 것처럼 서술하였다.

㉢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해 오는 측이 항상 이겨 오고 있었던 게 아닌가.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완전 합리화하고 있지.
해설	역시 선지 그 자체로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청년단', '화랑동지회' 시절의 과거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맞다는 인물의 생각이 타당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죠.
--	--

- ⑤ ㉣: '그것'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아직'은 유효하다고 주관화함으로써 현실의 변화를 인식하면서도 기존의 선택을 고수하여, 인물의 자기중심적 태도가 드러나도록 서술하였다.

㉣ 문제는 그것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지나간 게 아니라는 데 있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변화를 인식하면서 기존의 선택을 고수하고 있지.
해설	'온 씨'가 말한 것처럼 '허명두'와 같은 사람들이 날뛰던 시대가 서서히 지나가고 있음을 실감하긴 하지만, '허명두'는 기존의 선택을 고수하는 자기중심적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런 시대가 오긴 하겠지만,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니 이를 근거로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을 허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② 소설 독해 : '심리와 행동의 근거'를 바탕으로 인물에게 '공감'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물흐르듯 이어지면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문 내용 총정리

내용도 어렵지 않고 공감하기 쉬운 내면세계 위주로 제시되어 있어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의 전개 <운문문학 해결하기>

2026.11 [31~34] 고전시가 '복새곡 / 이 시름 저 시름~
/ 강원도 설화지를~' ☆☆☆

<보기> 확인

—<보 기>—

이 시가들은 경험의 실상과 외적 대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한다. (가)는 장면 속에서 묘사된 행위를 통해 정서나 의미를 드러내기도 하고, 화자를 대상화하며 해석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나)와 (다)는 동일한 소재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며,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표현을 통해 대상이 그 자체로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하지만 (나)는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대상과 행위에 담아내고, (다)는 대상으로부터 화자의 정서가 촉발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것저것 정보가 많은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주제를 알려 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 쓸모없는 <보기>입니다. 자세한 건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도록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실전적 지문 독해

(가)

온성이 몇 리런고 우리 말이 지쳤구나
서성 밖에 잠깐 쉬어 말 얻어 먹이려니
홀연히 소주 장사 앞에 와 팔려 하니
그 술을 먹어 보자 촌인(村人)의 솜씨 아니
분명 관가 술일네 그 곡절 모름소냐
이 사람이 술 즐거움 태수가 들었더라
미리 독에 빚어 예 와서 기다린 지
여러 날이 되었더라 수상히 오는 손을
나인 줄 짐작하고 짐짓 싸게 파는구나
자연히 이 소식을 바람결에 들으니
알은채 무엇 하리 담배대 돌을 주고
한 병을 기울이니 감홍로와 진배없네
유심터라 이 부사야 너 언제 날 알디냐
여기에서 종성 가기 오십 리가 된다 하니
바빠 가는 저문 길에 얼음 밑에 빠지고나
버선 행전 다 적시고 동태가 되었더라
이 몰골 이 거동을 난 보기 부끄럽다
만인 중에 출두하고 남여 위에 높게 앉아
억지로 발 드리운들 그 누가 저어하리

(중략)

여러 달 주리다가 혹시 혹시 출두하면
음식은 장하건만 하나나 살로 가랴
여러 날 칩쌀다가 더운 방에 들어오면
가슴에 열이 나니 먹느니 냉수로다
뉘라서 어사 벼슬 좋다고 하던가
봉고파출* 꽤한 일가 형문 곤장 차마 하랴
못할 일 마지못하니 제 심정 글러지고
송사 진 이 원통하여 몸쓸 말 지어내니
모르는 이 어이 알리 그 말을 끝이든네
고맙단 이 잠깐이오 원수는 대대로다
괴롭기는 저 혼자라 못할 것이 어사로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구강, 「복새곡」 -

* 봉고파출: 어사가 고을 원을 파면하고 관가의 창고를 잠금.

(중략) 이전에는 어딘가로 가는 길에 '서성 밖'이라는 공간에서 말과 함께 쉬며 술을 먹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장면이, (중략) 이후에는 '어사의 삶이 고달프다는 한탄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큰 주제만 잡아놓고, 자세한 독해는 문제를 풀면서 해보도록 해요.

(나)

이 시름 저 시름 여러 가지 시름 방패연에 세세히 적어
정월 대보름에 서풍이 고이 불 제 하얀 실 한 열레를 끝까지
풀어 띄울 제 큰 잔에 술을 부어 마지막 잔송하자 동계 동계
등등 떠서 높고 높이 솟아올라 백룡의 굽이같이 굽틀뉘를 뒤틀
어져 구름 속에 들거고나 동해 바다 건너가서 외로이 섰는 나
무에 걸렸다가

풍소소 우낙락할 제* 자연 소멸 하여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풍소소(風蕭蕭) 우낙락(雨落落)할 제: 바람 술술 불고 비가 후둑 후둑 내릴 때에.

시름이 가득한 화자가 그 시름을 '방패연'에 적어 띄우는 모습입니다. '방패연'이 날아가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간단하게 마무리되고 있죠?

(다)

강원도 설화지를 제 크기로 연을 지어
대사(大絲) 황사(黃絲) 백사(白絲) 줄을 통 열레에 삶이 없이
바람이 한창인 제 삼간 퇴김 시간 근두* 반공에 솟아올라 구름
에 걸렸으니 풍력도 있거니와 줄맥*이 없이 그러하랴
먼 데 임 줄맥을 길게 대어 뉘아 올라 하노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삼간 퇴김 시간 근두: 갇은 재주를 부려 연을 날리는 것을 말함.
* 줄맥(脈): 줄의 힘.

이번에도 '강원도 설화지'를 가지고 연을 지은 모습입니다. '시름'을 날려보내려는 목적으로 연을 날렸던 (나)의 화자와 달리, (다)의 화자는 '임'을 뉘아 오기 위한 목적으로 연을 날렸네요. 이런 내면세계를 파악하는 것 정도면 충분하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9%	52%	22%	13%	4%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① (가)는 남의 말을 인용하여 목적지의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목적지가 뭐가 위험해?
해설	(가)에서 남의 말을 인용한 부분을 굳이 찾아보면 '여기에서 종성 가기 오십 리가 된다 하니' 부분이 되겠죠? 일단 이는 목적지의 위험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 뿐더러, '목적지의 위험성'은 이 작품의

	주제를 고려했을 때 도저히 나타나기 힘든 부분이 니 이를 바탕으로 가볍게 지워낼 수 있겠습니다.
--	--

- ② (가)는 대구와 대조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화자의 괴로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괴로운 처지는 주제 그 자체네. 대구와 대조도 (중 략) 바로 뒤에 나오고.
해설	‘화자의 괴로운 처지’는 어사의 삶이 힘들다며 한탄 하던 (중략) 이후의 주제 그 자체입니다. 주제와 직 결되니 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면서 (중 략) 이후를 확인하니, ‘여러 ~ 하다가 ~ 하면’이라 는 대구 표현과 ‘가슴에 열이 나니 먹느니 냉수로 다’와 같은 대조 표현을 찾아볼 수 있네요. 역시 주 제와 직결되는 선지는 답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③ (나)는 가상의 존재에 빗대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 현상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방패연은 자연 현상이 아니지.
해설	(나)는 ‘백룡의 굽이’라는 가상의 존재에 빗대어 ‘방 패연’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패연’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으니 절대 로 허용할 수 없겠죠? (나)와 (다)처럼 짧은 지문들 은 지문 전체를 읽어보면서 근거를 찾는 것도 좋습 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 ④ (나)는 방위의 의미를 포함한 두 어휘를 사용하여 대상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함을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대상은 하나인데?
해설	‘서풍’, ‘동해’와 같은 방위의 의미를 포함한 어휘를 찾아볼 수는 있지만, (나)에서 이동하는 것은 ‘방패 연’밖에 없죠?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여러 대상 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색채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배경 속에서
대상의 움직임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는 딱히 색채어가 없는데?
해설	일단 (가)에서는 색채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대상의 움직임’은 (가)의 주제와 크게 관련 이 없으니, 이를 허용할 만한 근거를 찾기도 어렵 겠네요.

	한편, (나)에서는 ‘하얀 실’, ‘백룡’ 등 색채를 나타내 는 표현을 통해 배경 속에서 ‘방패연’이라는 대상의 움직임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선지는 (나)의 내용을 잘 설명하는 내용일 뿐이었네요.
--	---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6%	9%	66%	16%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 ① ㉠은 행로를 잠시 멈추게 된 이유가 되는 인식으로, 서성
밖까지 이르는 여정이 고단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온성이 몇 리런고 ㉠우리 말이 지쳤구나 서성 밖에 잠깐 쉬어 말 언어 먹이려니
--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말이 지칠 정도로 고단했구나.
해설	화자는 ‘온성’으로 가는 길에 말이 지쳤다는 이유로 ‘서성 밖’에 잠깐 쉬기로 합니다. 말이 지칠 정도면 ‘서성 밖’까지 이르는 여정이 굉장히 고단했을 것이 라고 할 수 있겠죠?

- ② ㉡은 술맛에 대한 평가로, 장사가 홀연히 등장했다는 인식과
함께 술의 출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홀연히 소주 장사 앞에 와 팔려 하니 그 술을 먹어 보자 ㉡촌인(村人)의 솜씨 아니 분명 관가 술일네 그 곡절 모름소냐 이 사람이 술 즐거움 태수가 들었더라
--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너무 맛있어서 술이 관가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됐지.
해설	화자는 ‘홀연히’ 나타난 ‘장사’가 파는 술을 먹고 ‘촌 인의 솜씨’가 아니라 분명히 ‘관가 술’이라는 생각 을 합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쌀을 빳어 술을 만들 었기 때문에 쌀이 부족한 농촌에서 ‘촌인’들이 만든 술은 그리 맛이 없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많은 쌀 을 쓸 수 없어 물을 많이 섞었을 테니까요. 이에 화 자는 술이 맛있다는 것, ‘장사’가 ‘홀연히’ 나타났다는 것을 근거로 이 술이 관가에서 ‘태수’가 미리 준 비한 것임을 알게 된 것이죠. 고전시가에서 ‘술’과 관련된 내용들은 자주 출제되니 이런 정보들을 확 실하게 알아두도록 합시다.

③ ㉔은 장사에게 화자가 어떻게 보였을지 추측한 진술로, 화자에게 물건을 싸게 판 이유를 추정하는 단서가 되고 있다.

미리 독에 빚어 예 와서 기다린 지
여러 날이 되었더라 ㉔ 수상히 오는 손을
나인 줄 짐작하고 짐짓 싸게 파는구나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화자는 '장사'가 자신을 '수상히 오는 손'으로 여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태수가 화자를 맞아 미리 준비한 술이기에 술을 싸게 판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해의 결과를 그대로 선지화한 모습이지요?

④ ㉔은 이 부사에 대한 평가로, 좋은 술을 얻은 것은 그가 옛 인연이 있었던 화자를 알아보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㉔ 유십터라 이 부사야 너 언제 날 알더냐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너 언제 날 알았냐는데?
해설	㉔은 '이 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너 언제 날 알아서 이런 걸 준비했니?'라는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근거로 하면 화자는 '이 부사'와 인연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인연이 있었다면 '이 부사'는 화자가 술을 좋아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이를 미리 준비한 것에 대해 화자가 이렇게 놀라고 기특해하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니까요. 결국 또 '독해'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답을 찾아냈습니다.

⑤ ㉔은 발을 내려 모습을 가리는 행위의 효과를 의심하는 표현으로, 위엄을 세우기 어렵겠다는 인식과 연결되고 있다.

바빠 가는 저문 길에 얼음 밑에 빠지고나
버선 행전 다 적시고 동태가 되었더라
이 물골 이 거동을 남 보기 부끄럽다
만인 중에 출두하고 남여 위에 높게 앉아
㉔ 억지로 발 드리운들 그 누가 저어하리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 누가 저어하겠냐고 했네.
해설	화자는 가는 길에 '얼음 밑'에 빠져 버려 바지와 신발이 다 젖은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부끄럽다'고 표현했다는 점, 나아가 억지로 발을 가려본들 누구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도 저어하지(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을 근거로 하면 위엄을 세우기 어렵겠다는 인식을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지요? '저어하다' 정도의 단어는 정말 자주 나오는 것이니 알아두셔야 해요!
--	---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4%	9%	7%	14%	6%

33. ㉔, 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㉔

㉔ 방패연 / ㉕ 연

- (나)와 (다)의 공통적인 소재였던 '연'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㉔은 화자의 시름을 담아 날려 보내는 용도, ㉕은 '먼 데' 있는 '임'을 뉘아 오기 위한 용도였어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답을 골라봅시다.

① ㉔은 감긴 실을 끝까지 풀어서 멀리 떠나보내려는 대상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멀리 떠나보내려는 거 맞지.
해설	㉔은 '하얀 실 한 열레를 끝까지 풀어' 띄운 것으로, 화자의 시름을 담고 멀리 떠나보내려는 대상이었습니다. 역시 핵심적인 내용을 답으로 제시했네요.

② ㉔은 비를 기원하여 바다 건너 자연물에 걸여 두려는 대상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갑자기 비를 왜 기원해.
해설	지금 기우제를 지내는 게 아닙니다. 주제와 너무나 무관한 선지네요.

③ ㉔은 바람이 잦아들었을 때 하늘에 유유히 띄워 두는 대상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풍력을 타고 날아가야지.
해설	㉔은 '먼 데' 있는 '임'을 뉘아 오기 위한 용도입니다. 지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풍력'을 이용해서라도 멀리 날아가야겠지요?

④ ㉔과 ㉕은 모두, 임에게 보내려는 전언을 담고 있는 대상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㉔은 아닌데?
해설	㉔은 화자의 시름을 날려보내기 위한 용도이지, ㉕처럼 '임'을 향해 날려보낸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㉕도 그저 '임'을 뉘아 오기 위한 것일 뿐, '임에게 보내려는 전언'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⑤ ㉓와 ㉔는 모두, 집단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날리는 대상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㉔는 아닌데?
해설	㉓는 '이 시름 저 시름 여러 가지 시름'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했을 때 시름을 극복하고자 하는 '집단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자 혼자만의 시름이 아닌 집단의 시름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㉔는 그저 '먼 데' 있는 '임'을 낚아 오기 위한 것일 뿐, '집단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주제만 잘 잡아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13%	49%	22%	11%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㉓

- ① (가)에서 얼음물에 빠져 '버선 행진' 다 적시는 대목은 경험을 실감 나게 보여 주면서 화자를 장면 속에서 대상화하여 '동태가 되었다'라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군.

바빠 가는 저문 길에 얼음 밑에 빠지고나
버선 행진 다 적시고 동태가 되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가)에서는 화자가 얼음 밑에 빠진 장면 속에서 화자를 '동태가 되었다'라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며 해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죠?

- ② (나)는 정월 보름날에 '큰 잔에 술을' 붓는 행위로 예를 갖추며 연을 '마지막 전승'하는 모습을 통해 평안함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담아내는군.

정월 대보름에 서풍이 고이 불 제 하얀 실 한 열레를 끝까지
풀어 띄울 제 큰 잔에 술을 부어 마지막 전승하자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충분히 예를 갖추고 있고, 평안함에 대한 바람은 주제 그 자체지.
해설	큰 잔에 술을 붓고 전승하는 행위로 예를 갖추고 있고, 이런 행위를 통해 시름이 없어진 평안함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죠. 주제와 직결되는 내용이니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③ (다)에서 연이 '솟아올라 구름'에 걸치는 것을 보고 화자가 연줄의 힘을 빌려 '먼 데 임'에게 가려고 하는 것은 대상의 역동성이 화자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여 주는군.

대사(大絲) 황사(黃絲) 백사(白絲) 줄을 통 열레에 살이 없이
바람이 한창인 제 삼간 퇴김 사간 근두* 반공에 솟아올라 구름에
걸쳤으니 풍력도 있거니와 줄맥*이 없이 그러하랴
먼 데 임 줄맥을 길게 대어 낚아 올까 하노라

*삼간 퇴김 사간 근두: 갇은 재주를 부려 연을 날리는 것을 말함.
*줄맥(脈): 줄의 힘.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임을 낚아 오려고 하는 거라니까.
해설	작품을 '상상'하면서 잘 '독해'했는지를 묻는 선지입니다. (다)의 화자는 '연'이 구름에 걸칠 정도로 높이 떠오른 상태에서 '풍력'도 있고, '줄맥'이 없이 그려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조금 헛갈릴 수도 있지만, 맥락상 '줄맥도 있는데 그러하다'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그러하다'는 '먼 데 임을 데려 오지 못한다'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군요. 즉, '풍력도 있는데 줄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임을 못 만나는 거야!'라는 의미로 독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한 화자는 그 '줄맥'을 '먼 데 임'에게 길게 대어 낚아 올까 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보면, 연을 마치 낚시대처럼 이용하여 '임'을 낚아 오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겠죠? 이러한 상상과 독해의 결과를 근거로 하면, 화자가 '먼 데 임'에게 가려고 한다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 '먼 데 임'에게 가는 것은 '연'이지 화자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치사한 내용일치가 아니라, '상상'하고 '독해'한다는 기본적인 문학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연이 날아간다는 '대상의 역동성'이 '임'을 만나고 싶은 화자의 욕망이라는 정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허용할 수 있겠죠?

- ④ (가)에서 '가슴에 열이 나서 '냉수'를 먹는 행위는 임무 수행에서 느낄 수 있는 고충을 드러내고, (나)에서 근심을 '세세히 적'는 행위는 문제 해소를 원하는 화자의 마음을 보여 주는군.

여러 날 칙쩍다가 더운 방에 들어오면
가슴에 열이 나니 먹느니 냉수로다

이 시름 저 시름 여러 가지 시름 방패연에 세세히 적어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네.



해설	‘가슴에 열’이 나서 ‘냉수’를 먹는 행위가 나오는데 (가)의 (중략) 이후는 어사로서의 임무 수행에서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드러내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주제를 고려하면 당연히 허용할 수 있는 선지죠? 나아가 근심(시름)을 ‘세세히 적’는 행위는 당연히 문제 해소를 원하는 (나)의 화자의 내면세계를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구요.
----	---

것도 아니었기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지문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간중간 고전시가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니, 이 지문이 어려웠다면 고전시가에 대한 경험을 더 많이 쌓아보도록 합시다.

- ⑤ (나)는 연이 ‘굶틀뒤틀 뒤틀어져’ 올라가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여, (다)는 연의 재료를 ‘강원도 설화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크기’까지 언급함으로써 대상 자체를 부각하는군.

백룡의 굽이같이 굶틀뒤틀 뒤틀어져 구름 속에 들거고나

강원도 설화지를 제 크기로 연을 지어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보기>에서 말한 그대로네.
해설	<보기>에서는 (나)와 (다)가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표현을 통해 대상을 그 자체로 부각한다고 했습니다. ‘굶틀뒤틀 뒤틀어져’ 올라가는 모습은 충분히 생동감 있고, ‘강원도 설화지’, ‘제 크기’와 같은 정보를 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역시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이는 ‘연’이라는 대상이 그 자체로 부각되는 효과를 낳겠지요?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② 고전시가 독해 : 겁먹지 않고, 현대시를 읽듯이 읽어내면 됩니다. 현대시와 마찬가지로, <보기>의 도움 등을 통해 ‘주제’ 위주로 가볍게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세한 해석은 선지가 해줄 겁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화자의 내면세계 위주로 파악하며 읽었다면 주제를 찾기도 어렵지 않았고, 선지에서 요구하는 독해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